

後金の 遼東進出 前後 만주와 몽골의 關係逆轉

盧基植*

<目次>

머리말

1. 만주와 몽골의 접근
 - 1) 15-6세기 몽골과 女眞의 분리와 접근
 - 2) 만주와 몽골의 對明 經濟 확대 시도
2. 만주와 몽골의 충돌
 - 1) 몽골의 反後金 활동
 - 2) 後金の 몽골과의 聯盟 시도 좌절
3. 만주와 몽골의 對外 經濟 변화
 - 1) 만주의 遼東 漢人 지배
 - 2) 몽골의 對外 經濟 변화

맺음말

머리말

17세기 전반기 격변의 소용돌이는 明과 몽골, 그리고 女眞이 서로 맞닿아 있는 遼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後金은 1618년 遼東 撫順 공격을 시작으로 明과 전쟁을 벌여 1621년에는 遼東으로 진출하였고, 이후 明朝와 對峙 상태를 지속하다가 1644년에는 마침내 入關하여 中國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明·清 交替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元·明·清 交替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몽골과 만주의 세력 교체가

* 고려대 동양사학과 강사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¹⁾

元代에 몽골의 지배하에 있던 女眞은 元末明初 몽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나 遼東에서 明朝의 세력이 확립되기 전까지 일부는 여전히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일부는 明朝에 服屬하거나 朝鮮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明朝는 長城 이북에서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몽골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좌측 날개인 遼東에 都司를 설치하고 서북쪽의 兀良哈와 동북쪽의 女眞을 衛所로 편성하고 朝貢貿易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永樂年間 衛所體制에 편입됨으로써 女眞은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후 몽골과 女眞의 관계는 분리·병존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몽골이 정치적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고 明朝에 대해 끊임없이 경제적 확대를 시도하면서 女眞에 대한 위협도 계속되었다.

嘉靖·隆慶·萬曆 年間에 이르러서 몽골에서는 左右翼이 長城과 遼東 지역으로 활동 영역이 나뉘고 明朝와의 관계에서는 通貢互市가 확대 실시된 이후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女眞에서는 정치적 통합이 진행되어 海西 4부와 建州部가 형성되고 이들이 對明 경제 이익을 놓고 분쟁을 시작하면서 遼東 주변의 몽골과 女眞의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몽골군이 女眞의 對明 전쟁에서 연합 작전을 전개하기도 하고 女眞 各部 간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도 하는 등 몽골과 女眞이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몽골과 女眞의 관계에서 몽골 우위의 상황은 여전했다.

몽골과 만주의 세력 관계는 後金이 遼東 공격을 시작하고 遼東으로 進出하여 漢人 지배로 전환하는 1618-21년 사이에 反轉되었다. 後金

1) 만주(滿洲, manju)라는 명칭은 1636년 淸 太宗 홍타이지가 자신들의 民族名으로 선포하였다. 그 이전에는 明朝側에서 女眞(女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시기에 따라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元代 몽골에서 淸代 만주로의 전환이라는 추세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만주라는 명칭을 소급하여 사용하였다.

이 對明 關係를 주도하고 몽골의 遼東 지역 對明 경제 이익을 병합함으로써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後金은 이를 전환점으로 하여 이후 몽골의 長城 지역 對明 경제를 병합하고 1636년에는 몽골을 복속시켜 大清體制를 형성할 수 있었다. 後金の 遼東 진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대부분 明과의 전쟁이나 後金の 사회 성격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본고에서는 元代에서 清代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 몽골에서 만주로의 전환이라는 추세에서 後金の 遼東 진출 시기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관점에서 後金の 遼東 진출 전후 몽골과 만주의 관계 변화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1. 만주와 몽골의 접근

1) 15-6세기 몽골과 女眞의 분리와 접근

14세기 말 몽골이 草原으로 후퇴하자 明朝는 무력 정벌과 함께 長城 이북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北元과 대치하는 한편 遼東 지역에는 遼東都司를 설치하여 北元 세력에 대한 공격의 측면 기지로 이용하였고, 遼東 북방에는 大寧都司와 兀良哈 三衛를 설치하여 北元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中原 지배를 상실한 이후에도 몽골은 계속해서 元朝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明朝의 군사적 공격과 방어 정책으로 인한 유목 경제의 불안정과 대외경제의 고립으로 통합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明朝와 대치가 지속되면서 몽골의 汗權은 약화되었고 北元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는 타타르(몽골本部 또는 東몽골)와 오이라트 사이에 汗權의 장악을 통하여 통합 체제를 유지하고 대외경제를 확대하려는 분쟁이 발생하였다.

15세기 초 永樂年間에 明朝는 타타르·오이라트와 朝貢貿易 關係를

형성하는 한편 5차의 대규모 정벌을 통해 몽골 내부의 분쟁에 개입해서 이들의 분열을 助長하고 세력을 약화시켜 長城 지역에서 몽골의 위협을 감소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遼東 지역에서는 兀良哈를 長城 지역의 몽골과 분리시키기 위해 衛所와 朝貢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女眞에 대해서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明朝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던 女眞의 부락들을 衛所로 편성하여 奴爾干都司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고 朝貢과 馬市를 통해 明朝와 交易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러한 明朝의 북방민족 정책에 의해 타타르와 오이라트는 長城 지역, 兀良哈와 女眞은 遼東 지역으로 분리되어 각각 朝貢과 馬市를 통한 貿易이나 때로는 약탈 등의 대명 경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女眞과 兀良哈는 遼東 지역에서 각각 자신의 對明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長城 지역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치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明初에 형성된 長城 지역과 遼東 지역의 분리, 遼東 지역에서의 몽골 兀良哈와 女眞의 분리라는 구도는 기본적으로 明末 後金이 몽골을 병합할 때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 분리 구도가 明末에 이르러 붕괴되는 데에는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는 明初의 몽골과 女眞의 분리 이후 장기간에 걸쳐 몽골과 女眞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몽골과 女眞의 분리 관계도 변화하여 서서히 만주와 몽골의 통합에 필요한 조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5세기 초 몽골과 女眞의 분리 이후 17세기 초 後金の 흥기에 이르기까지 몽골과 女眞 관계의 변화는 주로 몽골 사회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었다. 15-16세기의 몽골 사회의 변화 추세를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女眞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 뚜렷한 변화는 정치조직과 對明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5세기 중엽 明朝의 적극적인 몽골 정책이 중단되면서 몽골 사회는

정치조직의 통합에 의해 대명 경제 관계를 확대하려는 추세와 정치조직의 분산에 의해 對明 경제 관계를 확대하려는 추세가 병존하였다. 15세기 중엽 오이라트의 에센 한은 對明 朝貢 무역의 확대를 통해 몽골의 통합체제 형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에센 한의 對明 경제 확대는 통합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被殺 후 몽골의 통합체제는 급속히 붕괴되어 다시 정치조직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몽골의 분산된 정치조직들은 '小王子'에게 부여된 對明 朝貢權을 장악하기 위해 汗權 분쟁에 참여하거나, 明朝에게 새로운 朝貢貿易의 확대를 요구하였고, 한편으로는 南下하여 오르도스 지역을 점거하고 明의 변경에 접근하여 약탈을 통한 대외경제 확대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明朝는 몽골의 '小王子'에게만 朝貢權을 부여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長城을 수축하는 등의 방어 정책을 강화하였다.

몽골 분산조직 간의 분쟁은 다얀 한의 東몽골 통합으로 종식되었다.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걸쳐 동몽골(타타르)의 다얀 한은 諸子分封과 六萬戶制를 통해 몽골의 통합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통합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明朝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하여 對明 경제의 확대를 시도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다얀 한의 무력 공격에 대해 明朝는 몽골과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단절하고 강경한 방어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對明 무역의 단절이라는 상황 변화는 다얀 한의 사망 이후 몽골 사회 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左右 2翼과 六萬戶로 편성되었던 몽골의 통합체제는 다얀 한 死後 상층으로부터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각지에 分封된 다얀 한의 자손들은 몽골 한을 중심으로 한 左翼과 지농(濟農, 吉囊, jinong)을 중심으로 한 右翼에 각각 소속되어 느슨한 연맹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얀 한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牧地를 영유하고 독립적인 정치조직(울루스)을 형성하는 한편 하부 조직

(오탁)에 대해서는 다시 자손들에게 분봉해 주어 혈연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정치조직의 통합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左右翼의 분열은 右翼이 몽골의 군사활동과 대외경제의 확대를 주도하면서 발생하였다. 다만 한에 의해 몽골 우익의 지능에 임명되었던 바르스 불로드와 그의 뒤를 이은 長子 군 빌릭 지능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明朝에 대한 공격과 주변 미복속 몽골 세력에 대한 정벌을 주도하며 우익의 세력을 확대하여 몽골 한과 대등한 지위를 획하였고, 군 빌릭 사후 투메트부의 알탄은 우익의 세력을 장악하고 몽득골 한을 압박하여 한의 칭호를 획득하였다. 반면에 대외경제의 확대를 위한 군사 활동을 주도하지 못하는 몽골 한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1547년 보디 알락 한이 사망하고 다라이순 쿠덩(打來孫) 한이 즉위하였을 때 차하르부는 遼東 주변으로 이동하여 兀良哈 三衛가 활동하던 지역과 그들의 對明 경제권을 병합하였다. 이후 차하르는 朝貢貿易과 撫賞銀의 확대를 요구하며 몽골 좌익을 이끌고 遼東을 침공 약탈하는 등 遼東을 對明 경제의 대상으로 삼아 활동하였다.

알탄 한은 河套(오르도스)와 豊州川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明朝에 대해 끊임없이 通貢互市를 요구하며 약탈을 진행하는 한편 明에서 도망해온 漢人들을 집단 거주시켜 농경과 수공업에 종사하게 하는 ‘板升’을 경영하거나, 변경에서 밀무역을 진행하여 대외경제를 확대하였다. 알탄한은 長城 지역 對外 경제권을 장악하고 이를 확대로 전환시켜 몽골 우익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 1571년 明朝와 通貢互市가 이루어진 이후 알탄 한은 順義王에 봉해져 對明 경제권을 장악하는 한편 西北과 靑海 방면에 대해 정벌을 진행하고 라마교를 수입하여 종교적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몽골 우익의 통합을 강화하였다.

알탄의 死後 투메트부의 右翼 각부에 대한 주도적인 지위는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通貢互市 이후 우익 지역인 宣府·大同·陝西에는 수많은 互市가 설치되었고 對明 경제 관계 형태도 朝貢을 비롯하여 馬

市·小市·撫賞 등 다양한 종류가 생겨났으며, 무역에 대한 통제도 크게 완화되어 이제까지는 구입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對明 무역의 확대에 따라 더 이상 약탈을 위한 군사활동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몽골의 각 정치조직의 지도자들은 강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에서 明朝와의 교섭을 통하여 對明 무역권을 획득하고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分封을 통한 몽골 지도자의 수는 점차 증가되었고 이들이 모두 對明 무역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17세기 초 長城 지역에서 對明 무역권을 소유하며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보유한 몽골 지도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되었다. 이들은 오르도스, 투메트, 옹시예부, 카라친 등의 部에 소속이 되어 있었지만 部는 혈연적인 계통 또는 유목 지역을 나타낼 뿐이지 하나의 정치조직으로써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중엽 이후 동몽골의 左右翼 분리와 차하르부의 東遷, 對明 무역의 확대 등 長城 지역 몽골의 변화는 遼東 지역 몽골에게 파급되었고 이로 인해 몽골과 女眞의 분리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明初 몽골 한의 지배에서 분리된 兀良哈는 줄곧 몽골의 한권 분쟁에서 쟁탈의 대상이 되어 왔다. 15세기 전반기 타타르와 오이라트의 분쟁에서는 타타르가 兀良哈를 병합하여 배후 기지로 삼으려고 하였고, 타타르가 오이라트에게 패한 이후 잔여 세력이 兀良哈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오이라트의 에센 한은 兀良哈를 공격하였다. 또한 에센 한이 몽골을 통일한 이후 동몽골에 대한 지배는 퉁토부하 한에게 위임하였는데 퉁토부하 한은 兀良哈를 병합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였고, 兀良哈 지역을 통해 遼東都司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에센 한과 퉁토부하 한의 兀良哈 침공은 인접한 女眞 衛所에까지 미쳐 海西女眞의 일부 衛所는 이들의 직접적인 침공을 받았고 建州女眞은 이들의 공격을 피해 이동하였다. 몽골의 침공은 女眞 사회에 직

접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明朝의 遼東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이후 女眞의 對明 관계가 변화하고 衛所 체제가 동요되는 결과를 낳았다.

에센 한의 사망 이후 長城 지역이 다시 분열 상태로 전환되면서 兀良哈는 다시 遼東 무역을 회복하고 長城 지역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초 長城 지역에서 다얀 한에 의해 동몽골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그 자손들이 주변의 몽골 세력에 대한 복속을 시도하였고, 다시 16세기 중반에는 차하르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遼東 주변에 있던 兀良哈 三衛는 16세기 후반기에는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라이순 쿠덩 한은 보디 알락 한에 이어 몽골 한의 정치적 지위를 계승하였지만 몽골 우익의 알탄 한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遼東 지역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더욱 세력이 약해져 차하르부에 대한 지배권만 행사하는 차하르부의 한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1558년 투멘 한이 즉위하면서 차하르부는 점차 세력을 회복하였다. 투멘 한은 1592년까지 지속적으로 遼東을 약탈하며 通貢互市를 요구하는 한편 몽골 한으로서의 정치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 長城 지역의 알탄 한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차하르가 몽골 좌익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遼東 약탈은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1604년 립단 한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을 때에는 차하르부 내의 통합도 어려워졌다.

차하르부와 몽골 한의 주도적인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遼東 주변에서는 칼카 五부와 코르친의 정치적 독립과 對明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칼카 오부는 다얀 한의 후예인 후라하치(虎刺哈赤)의 다섯 아들이 각기 하나의 오투크(鄂托克, otog)을 영유하여 형성되었다. 이들은 兀良哈의 泰寧과 福餘衛를 복속시키고 開原과 廣寧 사이의 遼東 邊牆에 접근하여 거주하면서 兀良哈가 갖고 있던 朝貢과 馬市 등의 對明

경제권을 행사하였다.

칼카의 북쪽에는 코르친이 있었는데 코르친은 明初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어 몽골의 한권 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다만 한의 시기에도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칼카 오부가 강성해지면서 서남쪽으로의 진출이 저지당하지 동쪽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눈 코르친이라 불리며 興安嶺 이북에 거주하는 알루 코르친과 구별된다. 코르친에는 또한 고르로스·두르버트·잘라이트 部가 포함되어 있었다.

16세기 후반기 遼東 주변의 몽골 상황 변화에 따라 몽골과 女眞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다. 몽골과 女眞의 관계는 주로 對明 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女眞에서는 對明 互市 무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분산되어 있던 衛所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海西 女眞에는 하다·호이파·올라·여허 등 4部가 형성되었고, 建州 女眞에서는 王杲와 王兀堂 등이 흥기하여 明朝에 朝貢貿易權을 요구하며 遼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遼東 주변에서 몽골 통합과 對明 경제의 확대를 시도하던 차하르의 투멘 한은 海西 女眞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여 복속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遼東을 공격할 때 建州 女眞의 王杲와 연합하여 遼東軍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칼카와 海西 女眞은 開原에서 함께 互市貿易을 하였기 때문에 빈번하게 접촉하였다. 코르친은 칼카에 의해 遼東 互市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海西 女眞을 통해 對明 교역을 하였다. 이때 몽골과 女眞은 대외경제 확대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연합 관계를 형성하였고 使者의 왕래와 婚姻 등을 통하여 이러한 관계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女眞의 對明 경제권을 장악하였던 하다부의 완 한(萬汗)이 죽은 후 海西 女眞에서는 對明 조공권을 장악하려는 勅書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建州 女眞에서 누르하치가 흥기하여 建州 女眞을 통일하고

海西女眞과의 勅書 쟁탈전에 참여하였다. 海西女眞은 연합하여 누르하치의 도전에 대응하였는데 이때에 몽골의 일부 세력은 海西女眞과 연합하여 누르하치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후 누르하치도 몽골과의 연합 관계를 확대하면서 海西女眞을 병합해 나갔다. 이처럼 몽골과 女眞의 정치조직들은 각기 자신의 정치적 통일과 대외경제 상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였기 때문에 16세기 후반 몽골과 女眞의 관계는 몽골과 女眞의 정치조직의 통합, 대외경제 관계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2) 만주와 몽골의 對明 經濟 확대 시도

1618년(萬曆 46년, 天命 6년) 4월 누르하치는 七大恨을 선언하고 撫順城을 공격했다. 1582년 홍기 이후 女眞의 對明 무역을 장악하고 분산되어 있던 정치조직을 통합하려는 누르하치의 시도는 明朝의 개입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누르하치는 그간의 노력으로 통합된 군사력을 이용하여 明朝에 타격을 가해 後金の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인정하도록 하고, 유리한 경제 관계 조건을 얻어내어 통합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七大恨은 이러한 누르하치의 포부를 對明 경제 관계와 女眞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만을 빌려 표현한 것이었다.²⁾

後金이 遼東을 공격하는 데에는 전략적으로 遼東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허는 明朝의

2) 七大恨에 대해서는 1930년대 연구자들에 의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孟森, 「清太祖告天七大恨之眞本研究」, 『史學』(北京大學)1935.1, 1期(『明清史論著集刊』, 1959, 中華書局에 재수록); 鴛淵一 戶田茂喜, 「清太祖の七宗惱恨について」, 『史學研究』6-3, 1935; 鴛淵一, 「清太祖の七宗惱恨に就いて」, 『史學研究』(廣島史學研究會)6-3; 今西春秋, 「ヌルハチ七大恨論」, 『東洋史研究』1-4, 1936; 今西春秋, 「孟森氏に答う-ヌルハチ七大恨論に關して」, 『東洋史研究』1-5, 1936.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고, 몽골 각부는 明朝와 교역하고 또 撫賞銀을 수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撫賞銀을 획득하기 위해 遼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또 몽골 각부는 여허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때문에 後金이 明朝를 공격하고 여허를 병합하려 할 때 몽골의 항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누르하치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撫順을 공격하기 전에 몽골 각부와 연합 출병을 계획하였다. 後金 측의 자료에는 당시 몽골과의 연합 출병 합의에 대해 직접 언급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七大恨을 선언하는 출정식에 몽골의 영거더르 타이지가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아 누르하치가 그에게 출병을 알렸고 몽골 각부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³⁾ 또한 이후 몽골 각부의 행동으로 볼 때 누르하치는 撫順 공격 시에 연합 출병하기로 몽골과 합의했음이 분명하다.

後金軍이 撫順을 공격할 때 몽골 각부 군대는 遼東 邊牆에 접근해서 挾賞하여 明軍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明實錄』에 의하면 撫順城이 함락되었을 때 누르하치가 몽골과 연합하여 작전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누르하치는 撫順을 공격할 때 西虜 暖兔·宰寨 등을 끌어들이며 무장을 하고 遼河 兩岸에 주둔하면서 討賞하도록 했고, 립단 한과는 함께 入犯하기로 회의하였고, 東虜 炒花는 무리를 모아 鎮靖堡 밖에 주둔하게 했다.⁴⁾

3) 『滿文老檔』太祖 6, 天命 3年 4月 13日, 89-90쪽. 『滿文老檔』은 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滿文老檔』, 東洋文庫, 1955-1963을 이용하였고, 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譯註, 『滿文老檔』, 中華書局, 1990을 참조하였다.

4) 『神宗實錄』卷568, 萬曆 46年 4月 甲辰. 『明實錄』의 만주와 몽골에 관련된 사료는 『明代滿蒙史料 明實錄抄』 17冊, 京大文學部, 1941-1959; 『明實錄蒙古史料抄附瓦剌史料抄兀良哈史料抄』, 中國科學院歷史研究所蒙古史研究室編, 1957; 『明實錄東北史料輯』, 吉林省社科院歷史研究所編, 遼瀋書社, 1990 등으로 정리되어 있어 편리하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校印, 中文出版社 발행의 영인본과 대조하여 이용하였다.

몽골과의 연합 작전은 누르하치의 撫順 주변의 城堡 공격 시에도 계속되었다. 鑾兵簿尙書 薛三才의 上奏에 의하면 누르하치가 東州, 馬根單 등을 함락시키자 明軍은 後金軍을 추격하여 撫順城 남쪽에까지 갔는데 韃靼(몽골)의 공격으로 패배하였다.⁵⁾ 이후에도 後金과 몽골의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塘報로 계속 보고되었고 이를 우려하는 上奏가 이어졌다.⁶⁾

明 經略 楊鎬의 보고에 의하면 누르하치가 4·5월 사이 많은 銀幣를 諸虜에게 보내 助兵 分犯하게 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누르하치의 요청에 따라 6월에 乃蠻은 大清堡를 침범하였고, 炒花는 廣寧 大小黑山 雙台 일대를 공격하려고 하였다가 明軍의 대비가 있음을 알고 남쪽으로 내려가 河東 長勇堡를 공격하였다.⁷⁾ 이처럼 몽골 각부는 後金軍이 동쪽에서 공격하는 사이 서쪽에서 호응하여 明軍을 挾攻하였다. 이 연합 작전에는 차하르 립단 한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가 다음 해 누르하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전에 양국 간에 使者가 왕래했었다고 말한 것도⁸⁾ 누르하치가 撫順 공격 이전에 몽골 각부의 酋長들과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

後金과 몽골이 연합 작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對明 경제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遼東 西邊은 원래 兀良哈(兀良哈) 三衛의 무역 기지로 長城 지역보다 훨씬 일찍부터 무역 시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嘉靖年間 차하르부가 東遷하여 遼東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朝貢과 互市, 약탈이 병행되었고 遼東 주변의 몽골 각부의 정치조직도 차하르·칼카·코르친부 등으로 재편

5) 『神宗實錄』 卷568, 萬曆 46年 4月 丙辰.

6) 『神宗實錄』 卷568, 萬曆 46年 4月 戊午, 薛三才의 言과 吳亮嗣의 奏.; 卷569, 萬曆 46年 閏4月 庚申, 應震의 奏.; 卷569, 萬曆46年 閏4月 丙寅의 汪可受의 奏.

7) 『神宗實錄』 卷572, 萬曆 43年 7月 乙未.

8) 『滿文老檔』 太祖 13, 天命 4年 10月 22日, 195-196쪽.

되었다.⁹⁾ 이들 각부는 점차 여러 개의 유목조직으로 분산되어 갔고, 각 유목조직의 酋長들은 明朝와의 교섭을 통하여 각자의 시장과 撫賞銀을 확보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몽골 각부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개설과 撫賞銀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무력 행동을 하는 경우도 빈번했고 明朝는 시장과 撫賞銀의 存廢를 통해 몽골 각부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렇듯 몽골 각부는 對明 경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누르하치가 흥기하여 점차로 女眞 각부를 병합하기 시작하자 明朝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몽골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後金 건국 다음 해인 1617년 차하르의 릭단 한에게도 撫賞銀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투멘 한을 이은 릭단 한은 칭키스한과 다얀 한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지만 對明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지만 明朝에게 계속 경제권을 요구하면서 遼東 지역을 침공하면서 점차 몽골 한으로서의 지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다.¹⁰⁾ 릭단 한이 明朝와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遼東 지역에서도 長城 지역과 마찬가지로 명과 몽골 사이에 互市와 撫賞銀을 기초로 평화적 관계가 정착될 수 있는 조건은 형성된 셈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後金이 遼東 지역을 침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은 지속되지 못하게 되었다. 누르하치의 흥기와 明朝에 대한 저항은 몽골 각부가 對明 관계에서 유리한 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몽골 각부는 자신의 利害 관계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對明 경제 확대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後金과의 연합 출병에 참여했던 것은 그러한 행동 중의 하나였다. 몽골의 일부

9) 차하르의 동천 이후의 변천, 칼카·코르친의 계통 등에 대해서는 和田清, 『東亞史研究(蒙古編)』, 521-666쪽 참조.

10) 릭단 한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研究』, 同朋舍, 1980, 297-307쪽 참조.

酋長들은 明朝가 後金 정벌을 계획하고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요구하여 이를 통해 撫賞銀을 획득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明朝 측에서도 이러한 몽골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撫賞銀 요구를 이용하여 後金の 공격을 견제하거나 몽골의 군대를 해산시켜 연합 작전을 제지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몽골은 자신의 對明 경제 이익 확대, 특히 撫賞銀의 획득을 목표로 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이후 몽골 각부의 태도는 다양하고 변화가 심한 모습을 보였다. 後金の 遼東 진출이 진전됨에 따라, 또 이에 대한 明朝의 대응 조치가 변화함에 따라 몽골의 대외경제 조건이 변화하였고 몽골은 이에 따라 後金과 明朝 사이에서 왕복하며 빈번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그런데다가 몽골의 각부는 정치적으로 분산 독립되어 있어 대외관계에서 의견이 일치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각부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後金の 對明 요구는 경제적으로 女眞의 경제권 전부와 추가로 막대한 재물을 달라는 것이었고,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정치적 요구까지 포함되어 있어 明朝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1619년 1월 明朝가 누르하치에게 和議의 의사를 타진했을 때 누르하치는 明朝 황제가 잘못된 遼東 官員을 처벌하고, 여허에 출병해 있는 明朝의 官兵을 철수시키고, 이제까지 누르하치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여 七大恨을 풀어달라고 하고, 여기에 또 자신을 王으로 封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歲賞과 撫順의 敕書 500道, 開原의 칙서 1천 道 등 女眞의 모든 칙서를 주고, 비단 3천 필, 금 300량, 은 3천량을 撤兵 조건으로 제시했다.¹¹⁾ 그러나 明朝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後金 정벌을 결정하였고, 1619년 2월말 사르후에서 後金軍과 대전을 치렀으나 참패하였다.¹²⁾ 後金은 1619년 3월 사르후戰

11) 『滿文老檔』太祖 8, 天命 4年 1月 22日, 117-118쪽.

12) 사르후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阿南惟敬 外 戰史普及會, 『明と清

에서 승리한 이후 6월에는 開原을 함락하고 7월에는 鐵嶺을 점령한 다음 8월에는 海西女眞 여허(yehe)部를 병합하여 擧兵의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다.

後金の 撫順 공격에서 몽골이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明朝에서는 그 대책에 고심하였다. 後金の 撫順 공격은 당시로서는 遼東 東邊의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몽골의 출병은 遼東을 넘어 長城 지역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의 몽골 관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後金에 대한 대책 못지 않게 몽골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 대책적인 내용은 몽골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변방의 병력을 증강하고 몽골 각부에게 賞을 주어 해산시켜서 이들이 누르하치와 연합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戶科給事中 應震은 누르하치 대책 중의 하나로 몽골에게 順義王 알탄의 예에 따라 대대로 封爵하고 몽골과 맹약을 맺은 후에 누르하치 방어에 이용하는 ‘以逆虜攻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¹³⁾ 經略 楊鎬도 奴虜之交를 분리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撫賞之舊’를 복구하는데 달려 있으며, ‘西虜가 就款하면 東虜의 勢가 고립된다’고 주장하였다.¹⁴⁾

몽골 각부의 군사 행동과 挾賞이 계속되면서 몽골의 일부 세력은 明朝의 撫賞銀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楊鎬의 上奏에 따르면, 8월 24일 西虜 乃蠻 등 7營이 각기 使者를 보내 죄를 뉘우치고 求款하여 舊賞을 增額해주었는데 이들은 忠順을 맹세하고 철병하였다.¹⁵⁾

몽골의 요구는 기존의 交易과 撫賞銀을 유지한 채 좀 더 많은 撫賞

の決戰--サルフの戦い, 原書房, 1967; Ray Huang, "The Liao-tung 亭·邱運梅, 『明清戰爭史略』, 遼寧人民出版社, 1986; 孫文良, 「薩爾濇之戰」, 『滿族崛起與明清興亡』, 遼寧大學出版社, 1992; 徐正欽, 「明末 Sarhū(薩爾濇)戰과 성격」, 『安東史學』 2, 1994 등 참조.

13) 『神宗實錄』 卷 569, 萬曆 46年 閏4月 庚申, 乙亥.

14) 『神宗實錄』 卷 872, 萬曆 46年 7月 乙未.

15) 『神宗實錄』 卷 574, 萬曆 46年 9月 辛丑.

銀을 요구하는 挾賞이었다. 몽골 각부는 누르하치와 연합 작전을 통하여 挾賞하는 이외에 明軍의 주력이 後金 방어에 집중된 틈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군사 행동도 점차 확대하였다. 특히 廣寧과 山海關 지역을 침공하는 차하르의 군사 행동은 明朝를 긴장하게 했다. 1618년 9월 차하르가 변경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있었고¹⁶⁾ 1619년 2월 萬曆帝는 山海總兵 柴國柱의 塘報에 의거하여 ‘西虜 虎墩(릭단)이 逆酋(누르하치)의 犯順을 보고 이 기회를 틈타 挾賞하여 만일 뜻대로 되지 않으면 山海 일대 지방을 침범하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고, 戶科給事中 李奇珍 등도 ‘虎墩兎愁(릭단 한)이 10만여의 무리로 廣寧 東西와 山海 以西 일대 지방을 침범하고, 또 賴暈歹은 高台堡 邊外로 이주하여 주둔하면서 挾賞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침공할 것이다’고 하고, ‘狡夷虎(後金)가 동쪽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詰虜鷗가 서쪽에서 날개를 펴고 있어’ ‘肩臂(어깨와 팔)가 적의 공격을 받아 心腹이 편안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말하였다.¹⁷⁾ 이후에도 릭단 한의 침범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었다. 大學士 方從哲은 ‘虎墩兎愁은 韃敵 七八萬을 이끌고 本月(1619년 4월) 25일에 말에 올라 이미 索羅胡計兒라는 곳에 도착하여, 鎮靜堡를 상대로 하여 걸으려는 請賞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犯搶하려고 한다’는 塘報를 인용하여 릭단 한이 內地를 엿보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나 遼東軍이 누르하치에게 패한 것을 보고 더욱 기승을 부리니 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사르후戰 이후 後金의 對明 공세가 확대되면서 이를 틈탄 몽골 각부의 對明 활동도 활발해지자 明朝에서도 ‘以夷攻夷’ 주장이 날로 많아졌다.¹⁹⁾ 몽골의 對明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明朝 관원들의 관측대로

16) 『神宗實錄』卷 574, 萬曆 46年 9月 癸巳.

17) 『神宗實錄』卷 580, 萬曆 47年 2月 乙未.

18) 『神宗實錄』卷 581, 萬曆 47年 4月 乙卯.

後金이 몽골 각부를 收買하여 적극적인 對明 공격 활동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開原·鐵嶺 등 明朝의 邊城이 함락됨에 따라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통해서도 明朝로부터 撫賞銀 증액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몽골 칼카부의 주장인 자이사이(宰賽)와 暖兔의 24營은 1619년 5·6월 사이 開原 總兵官 馬臨에게 開原城에 助兵하겠다는 명목을 대고 군대를 끌고 와 開原 慶雲堡에서 市易하면서 撫賞銀을 요구했다. 馬臨은 몽골 병력을 이용해서 後金の 공격을 방어할 생각을 갖고 宰賽와 暖兔 24營 병력의 협조를 받으려고 여러 번 使者를 왕래시켰다.²⁰⁾ 炒花部 24營은 十方寺堡를 공격하고 廣寧에 와서 挾賞하였고, 차하르 립단 한은 廣寧 東西와 山海關 以西 각지를 소란하게 하면서 挾賞했다.²¹⁾ 그러나 이들의 挾賞을 明 조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後金軍이 開原을 공격할 때 宰賽와 暖兔는 출병하여 먼저 慶雲堡를 점령하고 鎮西堡를 포위하여 결국 서쪽에서 明軍을 견제하고 後金軍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馬臨은 몽골 병력을 믿고 방비를 하지 않아서 後金에게 開原을 쉽게 탈취 당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에도 몽골 각부는 遼東 邊牆 각지에서 계속 明朝에게 撫賞銀을 요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

明朝 관원들 사이에 열띤 논의를 벌이던 몽골을 이용하는 방안은 後金이 開原을 함락하고 여허를 병합하고 난 이후에는 더욱 득세하여 몽골에 사자를 파견하여 몽골의 주장들을 접촉하는 등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특히 開原의 상실은 明朝에게 큰 위협이 되어 開原城을 포기하면 누르하치가 마침내 몽골 자이사이(宰賽)와 暖兔 등과 통하게

19) 『神宗實錄』卷 581, 萬曆 47年 4月 庚申 兵部尚書 黃嘉善 題; 4月 戊寅 戶科官 應震 言.

20) 王在晉, 『三朝遼史實錄』(『長白叢書』四集, 吉林文史出版社, 1990.) 卷2, 萬曆 48年 2月 熊廷弼 揭, 46-47쪽.

21) 董啓祥, 「遼陽省費捷請疏」, 『籌遠碩書』卷21.

되어 虜亡齒寒과 같게 되고, 北關(여허)은 의지할 데가 없어져 누르하치에게 병합되어 遼河 東西를 지킬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山海關의 방어 기능도 상실하게 되므로 薊門이 직접 공격을 받게 되어 京師도 편안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제까지 明朝의 북방 문제 전략가들은 여허가 있을 때에는 여허를 이용하면 後金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여허를 적극 지원하였고, 여허가 後金の 공격을 받아 위급해지자 여허를 원조해서 여허가 後金과 몽골의 연합을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허가 後金에 병합되어 後金과 몽골의 연합 가능성이 더욱 커지자 이제는 後金과 몽골을 이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골에게 厚賞을 주고 유인하여 後金을 제압하도록 하면 明은 漁父之利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몽골의 首長인 棘丹 한을 이용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그러나 몽골을 믿는 것은 위험하며 몽골을 後金으로부터 분리시켜 後金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後金 대책을 몽골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신중론도 있었다. 몽골을 이용하는 전략에 대해 明朝의 관원들 사이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明朝의 몽골 정책은 누가 북방문제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적극성을 띠고 또 어떤 때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開原 함락 이후에는 몽골을 이용하여 後金の 鐵嶺 공격을 방어한다는 전략에 따라 몽골 각부에 撫賞銀을 전달하는 한편 자이사이(宰賽) 등에게 누르하치가 西進하면 몽골이 明과 교역할 互市가 없어져 물자 수급이 곤란하게 되고 撫賞銀을 수령할 곳도 없어진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後金の 공격을 막는 것이 몽골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몽골 각부가 後金에 대항하도록 자극하였다.²²⁾ 결국 後金の 遼東 공격 성공과 이로 인한 明의 위기 의식이 몽골의 對明 경제 확대 욕구를

22) 熊廷弼, 『恭陳初到事宜疏』, 『籌遼碩畫』 28.

더욱 자극한 셈이었다.

後金の 開原·鐵嶺 함락과 여허의 병합, 자이사이의 拘禁과 칼카와의 연맹 시도 등은 明朝에게 위기감을 갖게 했다. 王在晋은 이 상황을 ‘누르하치가 開原 鐵嶺을 연달아 함락하고 병이 더욱 강성해졌다. 宰賽를 생포하고 煖兔 炒花 수십영을 禁制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썩은 나무 자르듯이 北關을 취하고, 遼陽 瀋陽을 식탁 위의 고기처럼 본다’고 묘사했다.²³⁾ 이에 따라 明朝의 관원 사이에는 다시 몽골의 이용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遼東 巡撫 周永春은 누르하치가 여허를 병합하였고, 자이사이를 인질로 잡고, 또 煖兔 諸營과 연합하였음을 알고 炒花와 磧단에게 자이사이의 원수를 갚도록 자극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주어 이들이 後金을 공격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이에 필요한 帑金 2백만을 조정에 요청했다.²⁴⁾ 王在晋은 開原·鐵嶺이 함락되고 瀋陽이 비었는데 後金이 즉시 공격하지 않는 것은 明軍의 위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몽골과 결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撫賞銀을 획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明朝에 助兵하겠다고 찾아온 몽골을 내버려두면 後金을 돕게 되어 ‘앞문에 호랑이가 와 있는데, 뒷문으로는 또 이리(狼)가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後金과 몽골이 연합하여 공격하면 장차 遼東의 환란이 더욱 커져 비용이 10배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국가가 궁핍하다고 하지만 지금 몽골을 복속시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이러한 주장에 따라 몽골 각부와와의 교섭도 이루어졌다. 姚宗文은 여허 긴타이시의 딸이 있는 퇴모대와 磧단 한을 방문하여 4천 량을 주어 위무하였다.²⁶⁾ 또 자이사이가 포로가 된 후, 原任遊擊 馬時南은 夷人 使者과 함께 煖兔와

23) 『三朝遼史實錄』 卷2, 萬曆 47年 8月, 30쪽.

24) 『三朝遼史實錄』 卷2, 萬曆 47年 8月 21日, 29쪽.

25) 『三朝遼史實錄』, 卷2, 萬曆 47年 11月, 東撫 王在晋 題, 35-40쪽.

26) 『三朝遼史實錄』 卷2, 萬曆 47年 8月, 30쪽.

炒花에게 가서 사위인 여허 버일러의 원수를 갚으라고 자극하고, 이들에게 립단 한에게 구원을 청하도록 하였으나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타이시의 손녀인 립단 한의 처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王世忠을 보내 립단 한을 초무하도록 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²⁷⁾ 1620년 7월에는 립단 한에게 箭賞 1만8천량과 進馬賞 3만을 주기로 하였고²⁸⁾ 또 助兵하겠다고 온 몽골의 3천여 병력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明朝의 몽골 이용이 더욱 절박해짐에 따라 몽골의 明朝에 대한 撫賞銀 요구도 훨씬 성공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몽골 각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새로운 撫賞銀 획득을 시도하였다. 鎮靜·正安堡, 義州大康堡, 錦州 등에서 몽골 각부의 挾賞이 계속되었다.²⁹⁾ 撫賞銀을 확대할 수 있는 호기를 몽골 각부는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후에 누르하치가 비난했던 대로 자이사이가 後金에게 붙잡혀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明朝와의 관계에만 몰두하였다.

몽골의 이용에 희의를 갖고 있는 明의 관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몽골 각부가 明의 변경에 들어와 挾賞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더 큰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고, 이제까지의 몽골 정책이 이들의 욕심을 자극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明朝가 이용하는 몽골 병력 속에 누르하치의 '奸細'가 있어 오히려 邊城의 위험과 곤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였다. 熊廷弼의 경우에는 몽골이 자이사이의 석방을 위해 後金에 재물을 보냈고, 後金이 遼陽을 공격하면 몽골은 廣寧을 공격하겠다고 插血同盟한 것을 볼 때 몽골은 두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여 몽골 이용 정책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였다.³⁰⁾ 몽골 이용론자들과 신중론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時宜適切

27) 『三朝遼史實錄』卷2, 萬曆 47年, 熊廷弼 揭, 30쪽.

28) 『三朝遼史實錄』, 1620, 7월 壬子.

29) 『三朝遼史實錄』卷4, 天啓元年 4月, 總兵 李光榮 稟稱, 101-2쪽.

30) 『三朝遼史實錄』卷2, 萬曆 48年 2月, 熊廷弼 揭, 46-7쪽.

한 後金 대책이 결정되지 못하였다. 결국 明朝의 몽골 이용 정책은 몽골을 後金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성과는 거둘 수 있었지만 遼東 방어에는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2. 만주와 몽골의 충돌

1) 몽골의 反後金 활동

누르하치가 몽골에 대해 우려하던 상황이 鐵嶺城을 공격하고 여허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對明 경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後金の 遼東 공격을 이용했던 몽골 각부로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나타났을 때, 더구나 後金の 遼東 진출로 인해 자신의 對明 경제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을 때 태도를 바꾸어 後金에 적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後金과 몽골의 충돌은 鐵嶺에서 시작되었다. 後金 측의 사료에는 이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누르하치가 그 동안 몽골에 대해 가졌던 태도와 그것이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하여 後金과 몽골의 관계는 이전과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었다.

1619년 7월말 누르하치가 鐵嶺城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이샤이는 明軍을 지원하기로 하고 몽골 각부와 연합하여 병 1만을 이끌고 鐵嶺城으로 출병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鐵嶺城에 도착했을 때 鐵嶺城은 이미 後金軍에게 함락되어 後金軍이 城 안에 있었다. 밤새 城 밖 고랑 밑에 잠복해 있던 몽골 병력은 다음날 아침 後金の 말몰이꾼이 나오자 공격하였다. 後金兵은 이들이 몽골兵임을 확인하고도 누르하치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공격할 수도 없고 또 공격하지 않으면 後金 사람이 죽게 되어 난처해했다. 이를 보고 받은 누르하치는 즉시 반격

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암바 버일러가 몽골군을 공격했다가 나중에 무슨 후회할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이에 대해 누르하치는 자이사이의 罪狀을 열거하며 후회할 일 없으니 즉시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누르하치가 열거했던 자이사이의 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이사이는 누르하치가 약혼한 여허 긴타이시의 딸을 빼앗아 갔다. 둘째, 後金の 우갈라라는 촌락을 습격했다. 셋째, 後金이 파견한 사자를 아무런 죄도 없이 체포하여 이 사자가 도망하다가 明軍에게 살해되게 했다. 넷째, 後金이 明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이사이는 明朝에게 賞을 많이 주면 後金을 토벌하겠다고 하였다. 다섯째, 자이사이는 明의 통역관에게 明이 상을 많이 주는데 後金을 토벌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알 것이라고 소피를 뿌리며 맹세했다. 여섯째, 지금 後金の 사람을 먼저 죽였다.³¹⁾ 이 여섯 개 중 전반 세 개는 後金이 遼東을 공격하기 이전의 일이고 나머지 세 개는 遼東 공격 중에 일어난 일이다.

누르하치가 몽골병을 확인하고 즉시 공격을 결정하고 즉석에서 오랜 전의 일과 최근에 몽골이 明朝에게 後金을 공격하기로 맹세한 내용까지 포함된 자이사이의 죄상을 열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자이사이의 태도 변화를 알고서 그 대책에 오랫동안 고심해왔음을 보여준다. 얼마 전까지 연합하였던 자이사이의 돌변에 누르하치가 심하게 배반감과 낭패감을 느꼈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누르하치는 꿈에 큰 새들이 떼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보자기를 썩워 흰 새 한 마리를 사로잡고 ‘내가 몽골의 자이사이를 잡았다’고 소리치며 깎던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도 누르하치가 자이사이 문제를 寤寐不忘하였음을 보여준다.³²⁾

31) 『滿文老檔』太祖 11, 天命 4年 7月 25日, 165-168쪽.

32) 『滿洲實錄』卷5, 211쪽. 『滿洲實錄』의 번역본은 今西春秋 注釋, 『滿和對譯滿洲實錄』, 日滿文化協會, 1938의 台聯國風出版社. 영인본을 이용했다.

後金軍은 몽골군을 遼河까지 추격하여 자이사이, 자이사이의 두 아들 서트킬과 커식투, 자루트국의 박과 서분 형제, 코르친의 밍간 버일러의 아들 상가르자이 등 6명, 자이사이가 총애하는 다이갈 타부낭과 10여 명의 암반 등 총 150 명을 생포했다. 이들 포로의 구성을 보면 이번에 鐵嶺에 출병한 몽골군은 갈카와 코르친의 연합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몽골 연합군의 출병은 물론 明朝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明朝 측에서 開原과 鐵嶺, 그리고 여허가 後金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몽골 각부가 對明 경제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對明 경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몽골의 몇몇 部가 연합하여 출병하였던 것이다. 後金軍이 자이사이를 추격하고 나서 鐵嶺城으로 돌아올 때에 明軍과 遭遇했는데 이로 보아 자이사이의 몽골군은 明軍과 협동 작전을 하기 위해서 鐵嶺城에 왔던 것이 틀림없다.

몽골군을 격퇴하고 자이사이를 비롯한 포로를 잡은 누르하치는 기양양하였다. 자이사이는 몽골의 強酋였다. 『滿文老檔』의 자이사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도 그가 난폭하지만 강하고 부유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몽골국 오부 칼카에서 자이사이의 兵은 많고 가축은 많고 나라는 부유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강하다고 다른 나라에게 불손하고 능욕 약탈 살해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를 악마처럼 밋게 보았다. 자이사이 또한 그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늘을 나는 큰 새처럼, 혹은 짐승 중의 사나운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지냈다.³³⁾

이렇게 몽골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사이를 ‘하늘이 그르다고 여겨 그가 2만의 牧群 가운데 골라 댄던 좋은 말의 다리를 하늘이 묶어서

33) 『滿文老檔』太祖 11, 天命 4年 7月 25日, 170쪽.

달리지 못하게 하고, 山野를 누비던 호랑이 같은 몸도 저항할 수 없게 하여' 고랑 밭에 下馬하여 두 마리 말의 고삐를 잡고 있는 것을 그것도 말단의 병사 2 명이 사로잡았으니 대단한 승리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³⁴⁾ 後金軍은 자이사이를 비롯한 포로를 누르하치 한에게 알현시키면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나눈 대화에서도 後金の 몽골에 대한 태도를 느끼게 한다. 자이사이의 이후치 히야 먼두라는 자가 '한과 여러 버일러는 안녕하신가'하고 묻자, 두이치 버일러가 '우리 從卜步卒 10 명의 머리가 깨진 것 외에는 모두 안녕하다. 너희 말과 안장은 무사한가'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몽골인들은 창피하여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³⁵⁾ 이제까지 女眞이 몽골에 대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다. 女眞은 몽골에 대해 항상 저자세였고 몽골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만 당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승리가 누르하치에게는 몽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鐵嶺을 함락하고 자이사이에게 승리한 이후 1619년 8월 중순 後金은 여허를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여허에 소속되어 있던 하다·호이파·올라, 몽골 코르친 등 각 족민 1만여 명을 데려와 八旗에 分編하였다.³⁶⁾ 이로써 後金の 女眞 통일은 완료되었다. 여허 병합 직후에도 後金과 몽골의 가벼운 충돌이 있었다. 여허에서 획득한 물자를 가지고 오던 後金の 군대를 코르친의 밍간 버일러의 세 아들이 탈취해갔다. 누르하치가 이를 보고받고 코르친에게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의 가축을 왜 너희는 탈취하는가? 가져와 돌려주라'고 사자를 두 번이나 파견했으나 코르친은 반환하지 않았다.³⁷⁾ 뿐만 아니라 코르친부는 여허 지역에 들어와 농작물을 탈취해 갔다. 원래 몽골

34) 위와 같음.

35) 『滿文老檔』, 太祖 11, 天命 4年 7月 25日, 168쪽.

36) 『滿文老檔』 太祖 12, 天命 4年 8月, 175-188쪽

37) 『滿文老檔』 太祖 13, 天命 4年 10月, 189-90쪽.

코르친부는 여허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허를 통해 對明 무역을 하기도 하였으며 여허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여허의 붕괴는 코르친에게 타격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코르친은 後金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냈던 것이다. 코르친 뿐 아니라 자루트 몽골도 여허에 와서 後金兵을 죽이고 곡식을 가져 갔다. 자루트의 종논, 상가르자이는 여허 지방에 들어와서 곡식을 운반하려던 後金兵을 받은 죽이고 받은 붙잡아 갔다. 이때 後金軍은 몽골병 130명을 생포하였는데 누르하치는 그중 100명을 석방하고 도리를 지키고 잘 지내자는 글을 써서 네 번이나 보냈는데 자루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開原城을 약탈하여 갔다.³⁸⁾

칼카부 자이사이와 코르친부에 이어 차하르 립단 한과도 충돌하게 되었다. 1619년 10월 22일에 차하르 립단 한의 항갈 바이후라는 암반이 사자로 왔다. 몽골 한의 사신이 왔기 때문에 잘 대접했는데 그가 내놓은 립단 한의 편지는 後金을 비하하고 後金の 遼東 진출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40만 몽골국의 군주 바투루 칭기스한의 글. 물(水)의 3만 주선(女眞)의 君主 쿤둘런 경기연 한은 별일 없이 잘 지내는가 안부 물으러 보낸다. 明國은 우리 兩國 모두에게 敵國이었다. 말의 해(戊午, 1618)부터 양의 해(己未, 1619)에 이르기까지 네가 明國을 괴롭혔다는 것을 나는 들었다. 양의 해 여름 내가 몸소 가서 말하여 廣寧城을 항복시키고 알반(貢賦)을 취하였다. 지금 네가 廣寧城으로 출정시킬 때에는 네가 너를 저지하겠다. 우리 2인은 싸움 없이 지냈다. 내가 항복시킨 나라를 네가 취했을 때 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말한 대로 우리 2인의 시비는 하늘이 알 것이다. 이전에 우리의 사자가 왕래했을 때 너의 사자는 나를 불손하다고 나쁘게 보고하여 사자 왕래가 끊어졌다. 나의 이 말이 옳다면 네가 전에 보냈던 사자를 보내라.³⁹⁾

38)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0月, 201-203쪽.

39)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0月, 195-196쪽.

릭단 한이 누르하치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요지는 廣寧 지역으로는 침공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다. 廣寧은 몽골 각부가 撫賞銀을 수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누르하치가 공격하면 자신의 撫賞銀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의 편지에 따르면 립단은 1619년 여름 廣寧城에 가서 明朝로부터 撫賞銀을 받기로 하고 後金이 西進하도 못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아직 遼東 지역으로의 진공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明朝가 립단 한을 이용한 遼東 방어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립단 한은 이에 호응해서 누르하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자이사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립단 한도 明朝에 협조해서 反後金 활동에 나서기로 태도를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明朝의 撫賞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明朝의 관원들이 자이사이와 립단에게 後金の 遼東 진입으로 인해 몽골이 撫賞銀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몽골 각부에게 後金の 공격으로 明朝가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은 자신들의 撫賞銀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립단 한의 편지를 받고 後金の 버일러와 암반들은 분노하여 사자를 죽이거나, 귀 코를 잘라 보내자고 하였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너희가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 나도 화가 난다. 온 사자를 어찌하겠는가? 나쁜 말을 보낸 주인이 나쁜 것이다’고 하여 이들을 제지시켜 립단과의 충돌을 자제하였다. 다만 립단 한의 사신을 억류시켰다.⁴⁰⁾ 몽골의 대추장인 자이사이와 립단 한이 反後金の 선봉에 섰던 것은 몽골 내에서 주도적인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後金の 공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對明 挾賞에 이용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後金の 對明 경제 확대 시도와 몽골의 對明 경제 확대 시도가 상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後金과 몽골의 협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40)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0月, 195쪽.

2) 後金の 몽골과의 聯盟 시도 좌절

누르하치는 사르후戰에서 승리한 이후 遼東 진출을 계획했다. 遼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쪽의 開原, 鐵嶺 등의 明 邊鎮과 여허의 연결을 단절시켜야 하고 또 몽골의 개입을 고려해야 했다. 後金군은 1619년 3월 사르후戰이 끝난 이후 8월까지 開原 鐵嶺 여허를 함락했다. 이 과정에서 몽골은 이전의 협조적이었던 태도를 돌변하여 後金の 진로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遼東에 진입하는 것은 後金으로서의 위협스러운 일이었다. 1619년 8월 여허를 병합한 이후 1621년 봄 遼東 진출에 나설 때까지 1년 반 이상을 머뭇거렸던 것은 여허 병합 이후 後金 내부의 정비와 정벌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몽골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였다.

누르하치가 몽골과 反明 연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은 開原을 함락하면서부터였다. 開原城을 함락하고 돌아오면서 니오왕기안 다바간(清河嶺)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자를 보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칼카 오부에 보냈다.

‘옛날 사람들은 80만의 明, 40만의 몽골, 물 가의 3만 女眞이라고 했다’고 노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80만 漢人은 그들의 대국에 만족하지 않고 적다고, 우리 나라를 작다고 업신여기고, 죽이려는 것을 죽이고, 빼앗으려는 것을 빼앗았는데, 지금 또 여허의 긴타이시, 부양구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도 우리의 내부의 일이고, 좋아도 우리 내부의 일이다. 우리 나라 내부의 일로 나빠져 싸우게 되었을 때, 明 너는 왜 여허를 도와주어 여허 사람을 나에게서 떼어내 뺏으려 하는가’하고 나는 天地에 빌고 明國을 정벌했다. 천지는 나를 옹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明을) 남쪽으로 정벌하려고 한다. 칼카 몽골의 버일러들, 너희도 그때에 정벌하겠는가? (그런데) 너희가 정벌하면 너희 몽골의 병과 우리의 병이 明의 경내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만나서 누군가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재물을) 얻겠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댔던 말을 뺏을 때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明

(Nikan)과 朝鮮(Solho) 양국은 말은 다르지만 입은 옷, 사는 방식은 한 가지이니라. 몽골(Monggo)와 女眞(Jus'en) 우리 양국은 말은 다르지만 입은 옷, 사는 방식은 한 가지이니라. 우리 양국의 병사가 明의 경내에서 만나 사람을 죽이고 타는 말을 뺏으면, 우리의 명분이 나빠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 때문에 너희가 하나의 굳은 서약의 말을 하겠는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다.⁴¹⁾

누르하치가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은 後金이 明을 정벌할 때 몽골도 동시에 정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明 경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해두자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몽골과의 군사적 연맹 관계를 분명하게 하자는 의도였다. 또 여기에서 女眞과 몽골의 문화적 동질성을 내세워 後金과 몽골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누르하치가 이미 明朝가 몽골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우려하여 한 말이었다. 이 편지에 대해 칼카의 회답은 없었다.

이미 遼東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몽골과 어떻게 맹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던 누르하치에게 자이사이가 공격해 왔고 그를 포로로 잡게 됨으로써 칼카 오부와 교섭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자이사이를 포로로 잡고 의기양양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누르하치는 이번 사건을 몽골 칼카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회로 이용하였다. 그는 鐵嶺城에서 회군하던 날 먼저 자이사이 버일러의 구추(막우) 보로치라는 암반과 10여 명을 몽골로 돌려 보내 몽골군이 後金軍을 먼저 공격하여 1백 명을 죽이고 마 1천을 탈취하였으나 後金軍에게 패하고 자이사이와 6인의 버일러, 1백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몽골의 버일러들이 자이사이의 가축을 약탈해갈지도 모른다고 하여 돌아가 가축을 돌보도록 하라고 140 명의 포로를 돌려보냈다.⁴²⁾ 이러

41) 『滿文老檔』太祖 10, 天命 4年 6月, 159-160쪽.

한 조치는 자이사이의 재산을 보전함으로써 그의 인질로서의 가치를 유지시키려는 것이었다.

여허를 명말시킨 후인 1619년 9월에 들어서면서 몽골과의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었다. 누르하치는 먼저 여허 지역을 침공하는 코르친 몽골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 몽골인은 동쪽 여허 지방에 이르기까지 들어오지 마라. 내가 멸망시킨 곳에 너희가 침입하여 그곳의 곡식을 갖고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곡식이 없어 괴롭게 하겠다고 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여기겠다. 나는 그 토지의 곡식 주인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는가? 봄이 오기까지는 멸망시킨 이 곳의 곡식을 가져다가 먹이려 한다. 또 어떤 좋은 마음을 갖는 버일러들이 (나를) 친척이라고 생각한다면, 명을 함께 정벌하겠다고 하면, 너희의 살찐 말을 끌고, 병사들이 먹을 가축을 끌고 오너라. 우리는 (지금) 1인이 먹을 곡식을 10인이 먹는다. 말 한 마리에게 먹일 말먹이를 열 마리 말에게 먹인다. 우리의 人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의 병마가 오면 무엇을 먹이겠는가? 일년간 농사를 지어 곡식을 수확한 후에 다시 너희를 불러서 (明 정벌에) 데리고 갈 것이다.⁴²⁾

위 내용으로 보아 당시 後金の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코르친 몽골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코르친은 여허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물자를 획득하기 위해 여허 지역에 들어갔던 것인데 누르하치는 이에 대해 코르친에게 들어올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만일 지금 함께 明朝를 약탈하겠다면 충분한 말과 식량을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다면 일 년간 농사를 지어 식량을 준비한 다음에 함께 明朝 정벌에 나서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코르친 몽골은 遼東 진입에 배후의 걱정거리는 되겠지만 그다지 큰 위협은 되지 않았다. 직접 부딪힐 가능성이 큰 것은 코르친보다는 칼

42) 『滿文老檔』太祖 10, 天命 4年 6月, 169-171쪽.

43)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0月, 189-90쪽.

카 오부와 차하르 립단 한이었기 때문에 누르하치는 그들과의 교섭에 집중하였다.

자이사이가 포로가 된 이후 8월 중순 칼카오부의 버일러들은 이전부터 後金과 교왕이 있었던 누르하치의 조카사위 엉거더르를 대표로 하여 사자를 파견했다. 이때 누르하치는 여허에 출정하고 없었는데 이들은 누르하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이사이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한(누르하치)이 그를 죽였을 것이다. 우리 칼카 오부의 버일러들을 생각하여 살려주었으니 어디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명이 자이사이를 잡았다면 그를 죽여 머리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의 목숨이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에 대해 우리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한의 뜻대로 하라'고 하여 그의 잘못을 시인하고 누르하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고 돌아갔다.

이에 대한 답으로 누르하치는 9월 5일 몽골 칼카오부의 버일러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먼저 자이사이의 죄상을 다시 열거했다. 여기에서는 이전에 자이사이가 鐵嶺城을 공격해 왔을 때 열거했던 것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開原 함락 후에 칼카 오부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썼던 내용을 자이사이의 죄상에 추가한 것이었다. 그는 '명과 조선 양국은 언어가 다르지만 두발도 의복도 같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한 나라와 같다. 몽골과 우리 양국은 본래 언어가 달라 도 옷 입는 것,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은 한 나라와 같다'고 하여 만주와 몽골의 문화동일성을 강조하고 '한 나라와 같은 國人을 죽이고 그 뼈를 明에게 주고 明의 金銀을 받겠다고 이 자이사이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明國에게 서약을 하였다고 듣고 나는 어찌하면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여 자이사이가 明朝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後金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한 것을 비난하였다. 이어서 본론을 꺼내 '나를 오랫동안 화나게 한 자이사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칼카의 조릭투 버일러, 어부거더이 후왕 타이지 너희들을

생각해서 자이사이를 억류했던 것임을 알라'고 하여 자이사이를 붙잡아두었던 본심을 드러냈다. 즉 자이사이를 인질로 하여 칼카의 대표격인 조릭투 버일러와 어부거더이 후왕 타이지와 관계 형성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누르하치는 이어 '너희가 明을 정벌한다고 大國인 明이 멸망하는가? 다른 곳을 정벌하지 않고 왜 내가 모아둔 갑옷, 모아둔 곡식을 침해하는가? 죄임을 알면서 왜 침범하는가'라고 後金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⁴⁴⁾

칼카의 버일러들은 10월 22일 조릭투 흥 바투루 버일러를 비롯한 여러 버일러들의 이름으로 누르하치에게 답장을 보내 연합 정벌에 동의하였다.

한에게 여러 번 죄 지은 것은 자이사이의 잘못이다. 이것을 한 당신은 알라. 본래 적이었던 明을 뜻을 함께 하여 토벌하자고 한 말 옳다. 山海關에 이르기까지 토벌하자. 이 말에 따르지 않는 자를 부처님 하느님이 알 것이다. 또 만일 明과 講和하게 되면 우리 말하여 합의하여 강화하자. 明이 너에게는 많은 재화를 주고, 우리에게 준 것은 적다고 하면 너희는 받지 마라. 우리에게 많이 주고 너희에게 적게 주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 말을 지키면 遼近의 자들이 이를 듣게되어 우리의 명성이 좋아질 것이다.⁴⁵⁾

이 편지를 보면 당시 칼카오부의 버일러들은 後金도 자신들처럼 明과 和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제까지 後金の 성공으로 볼 때 後金이 만약 화의를 하게 되면 막대한 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에 칼카 오부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누르하치는 칼카오부 버일러들의 연합 정벌 참여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 서약문을 가지고 가서 맹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서약은 당

44)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0月, 191-193쪽.

45)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0月, 194-195쪽.

시 몽골과 女眞의 각부 관계를 규약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後金이 처음으로 몽골과 체결한 이 서약문을 통하여 당시 몽골과 女眞에서 이루어지는 맹약의 형식과 맹약이 갖는 구속력 등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오부의 칼카 버일러들과 쿤들룬 경기연 한(누르차치)의 10부의 버일러들은 天地가 우리 양국을 보살피며 도를 지키고 뜻을 같이 하며 지내라고 하여 和議를 체결기로 했으므로 우리 양국은 천지에 서약한다. 쿤들룬 경기연한의 10부 버일러들과 칼카 오부의 執政 버일러들은 양국의 대도를 지키기로 己未年 10월에 하늘에 白馬, 땅에 黑牛 잡고, 소주 한 잔, 고기 한 그릇, 糝 한 그릇, 피 한 그릇, 흰 뼈 한 그릇을 담고, 진실한 말을 하여 하늘에 서약한다. 원래 원수인 明國을 우리 양국은 뜻을 같이 하여 토벌한다. 어떤 때에도 明國과 和議할 때에는 협의하여 화의한다. 만일 天地에 서약한 말을 깨고 오부 칼카에 의논하지 않고 쿤들룬 경기연 한이 明國과 먼저 和約하는 경우에도, 明國이 우리 양국의 뜻을 깨졌다고 우리 執政 10 버일러를 안에서 이간시키려고 사람을 보내 올 경우에도 그 말을 오부 칼카에게 고하지 않는다면 천지가 그르다고 하여 우리 10부의 집정 버일러들은 수명이 단축되고 이 피같은 피 나고, 이 흙같은 흙에 놀리고, 이 뼈처럼 백골이 되어 죽을 것이다. 오부 칼카에게 明國이 화의하자고 안으로부터 이간시키려고 사람 보냈는데 그 말을 우리에게 고하지 않으면 칼카의 두령 흥 바투루, 오바 다이칭, 어선 타이지, 바바이 타이지, 아소트 진, 망굴다이, 어부거더이 후왕 타이지, 우바시 타이지 두령, 구르부시, 다이 다르한, 망굴다이 다이칭, 비덩투, 열덩, 추후르, 다른 바투루, 영거더르, 상가르자이, 부타치, 어덩, 얼지저 등은 수명이 짧아지고 이 피처럼 피나고, 이 흙처럼 흙에 놀리고, 이 뼈처럼 백골이 되어 죽을 것이다. 우리 양국이 天地에 서약한 말을 지키며 지내면 천지가 우리를 보살피며 이 소주를 마시고, 이 고기를 먹고 우리 양국의 執政 버일러들은 수명이 길어지고 차손 百代 萬년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지낼 것을 바라여, 천지가 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쿤들룬 경기연한 및 오부의 버일러들은 우리 양국은 합의한다고 천지에 叩頭하고 跪拜하여 맹세한다.⁴⁶⁾

46)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1月 1日, 196-199쪽.

이 서약문을 보면 後金 10 버일러와 칼카의 20 버일러가 동등한 입장에서 맹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들이 맹약을 어긴다 해도 하늘이 벌을 내리는 이외에는 그것을 징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때 後金이 몽골과 맺은 맹약은 이후 구체적인 벌칙 등이 규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별로 규제성이 없는 것이었다.

칼카 오부와 서약을 하는 한편 누르하치는 자이사이와 함께 잡혔던 두 아들 중 하나인 커식투를 돌려 보냈다. 그리고 ‘우리 양국이 의를 같이하여 明國을 토벌해서 廣寧을 얻게 되면 나는 그때 자이사이의 몸을 생각하겠다’고 말하였다. 누르하치는 자이사이를 인질로 잡아 놓아 廣寧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칼카 오부가 방해하지 않도록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廣寧 지방을 얻기 전에는 자이사이의 두 아들이 따로 따로 한 사람은 그곳에 있는 집, 가축, 국인을 감시하러 가고, 한 사람은 이곳에 있는 아버지를 모셔라. 둘은 교대로 왔다 갔다 해라. 한 아들이 가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국인을 형제에게 뺏길까 두렵다’고 하여⁴⁷⁾ 자이사이의 부속 민을 다른 형제들이 나누어 가져 버리면 자이사이가 인질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들을 교대로 보내 관리하도록 했다.

칼카 오부와 맹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자루트 지방의 버일러 30여 명은 자이사이와 함께 鐵嶺에서 잡혔던 박, 서분 두 버일러의 몸값으로 말 30 두, 낙타 5 두를 보내왔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이를 받지 않고 사자들에게 ‘나는 재화·가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성실하고 확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의 신실한 마음을 알기에 재화·가축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보낸다’고 하여 몸값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박과 서분의 석방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성실함이 무엇이나 하면 너희 자루트 버일러들이 明國을 토벌하는 것

47)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1月, 200-201쪽.

을 보면 신실함을 알 것이다. 너희 몽골 버일러들은 말이 다른 明國과 공모하여 나를 토벌하겠다고 천지에 서약했던 것을 천지가 그르다고 너희 몽골의 버일러를 나에게 붙잡히게 했다. 하늘이 주어 잡은 버일러를 나는 너희의 신실을 볼 때까지 석방하지 않겠다. 붙잡힌 박, 서분이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생각되면 박, 서분의 아들 하나씩을 대신 머물게 할 때 박, 서분 중 한 사람을 먼저 가게 하겠다. 갔던 자가 다시 돌아 온 이후 다시 한 사람 가게 하겠다. 따로 따로 가게 하겠다.⁴⁸⁾

누르하치는 자루트 버일러들이 명국을 토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또 아들을 인질로 삼고 버일러 본인들은 교대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廣寧을 함락할 때까지는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아들만을 교대로 돌려보내기로 했던 자이사이의 경우에 비하면 약간 가벼운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이때 왔던 사자 중 5 명을 돌려보내지 않고, 이전에 여허와 開原 등을 침탈했던 자루트의 종논과 상 가르자이 버일러에 편지를 보내 '나 자신이 힘들여 우리 병사가 죽으며 얻은 開原 鐵嶺 여허 지방의 곡식, 인, 마, 가축 등을 왜 너희 몽골인이 가지고 가느냐? 우리가 성을 격파했을 때 너희 몽골인이 나와 함께 격파했는가? 그 토지는 너희 몽골인이 함께 경작한 것인가'라고 추궁하였다. 그리고 가져간 곡식 천 홀러(斛)를 반환하고 만일 이미 다 먹어버렸으면 대신 양 1천 두, 소 1천 두를 보내라고 하고 그러면 포로들을 돌려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이 가져간 사람·말·가축을 모두 찾아내어 보내고 이들이 죽인 後金兵을 위해 像을 세우고 弔問해야만 이전과 같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⁴⁹⁾

자루트에게 보낸 편지에는 女眞과 몽골의 관계에 대해 이전과는 다

48)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1月, 199-200쪽.

49)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1月, 201-203쪽.

른 논리를 펴고 있어 주목된다. 이전에는 女眞과 몽골은 말은 달라도 의복과 생활 방식이 같으니 한 나라처럼 지내자고 하였는데 이번 편지에서는 ‘너희 몽골국은 가축을 길러 고기를 먹고 가죽옷을 입고 지낸다. 우리 나라는 토지를 경작하여 곡식을 먹고 지낸다. 우리 양국은 한 나라는 아니고 언어가 다른 나라이다’라고 하여 몽골이 만주와 경제 생활 방식과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⁵⁰⁾ 明에 대항할 때에는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서로 이익이 충돌될 때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누르하치는 자루트에 대해서는 明朝를 공격하기 위한 연합보다 後金이 이미 획득한 이익을 침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장 해결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누르하치의 이러한 외교 공세에 대하여 오부 칼카의 버일러들은 인질의 석방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각자 거주하는 곳에서 한 곳에 모여 10泊하면서 대책을 논의하여 여허에서 도망은 사람, 黻앗아 온 말·소 등을 모두 돌려주고, 양국이 일국처럼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1619년 12월 23일 칼카의 버일러들은 누르하치의 사자 앞에서 서약문에 한 마디라도 위배되지 않겠다는 글을 써서 태우고 맹세했다.⁵¹⁾ 이때 참여하지 않았던 종논 버일러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말 後金の 사자가 다시 찾아가서 서약하게 했다.⁵²⁾ 이어 1620년 1월에는 자루트의 사자가 와서 여허에서 침탈한 것을 조사해보니 곡물 열 수레인데 이에 대한 배상으로 수레를 끌었던 소 10마리를 보내고, 더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또 여허에서 도망한 자는 10인인데 지금은 추우니 따뜻해지면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너이치 한의 사자도 와서 도망자 250인을 따뜻해지면 송환하겠다고 하였다. 이들의 보고는 누르하치의 강력한 요구에 대

50) 위와 같음.

51) 『滿文老檔』太祖 13, 天命 4年 12月 23日, 203-204쪽.

52) 『滿文老檔』, 太祖 14, 天命 5年 2月 29日, 211-212쪽.

해 그저 성의 표시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칼카의 홍마투루와 바린의 어부거더이 버일러의 사자들을 증인으로 하여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억류했던 자들을 석방해 주었다.⁵³⁾

칼카와 자루트 등과 맹약을 체결하고 난 후 1620년 1월 17일 누르하치는 10월 말에 보내왔던 립단 한의 글에 대해 회답을 보냈다. 2개월 이상의 長考 끝에 작성한 答書는 립단 한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보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편지에서 누르하치는 이제까지 몽골 립단 한에 대해 가졌던 저자세를 버리고 대등하게 맞서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립단 한이 누르하치에게 廣寧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에 대해 반박하여 對明 공세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또 여기에서는 누르하치와 립단의 대외경제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누르하치는 答書에서 먼저 차하르 립단 한이 자신을 몽골 40萬의 君主라고 치켜세우고 누르하치는 물의 3萬 遼東의 君主라고 비하한데 대해 다음과 같이 그 허구성률 지적하였다.

차하르 한아! 네가 보낸 글에 '40萬 몽골의 君主 바투루 칭기스 한이 물의 3萬 遼東의 君主 坤들룬 경기연 한에게 글 보낸다'고 썼다. 너는 40만 몽골의 多數를 왜 나에게 자랑하는가? 내가 듣기로는 大都城을 明에 빼앗겼을 때 40만의 몽골인은 모두 잡히고, 다만 6萬만이 도망쳤다고 한다. 그 6萬의 몽골인도 모두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르도스 1萬, 12투메트 1萬, 아소트·용시에부 1萬, 이 右翼 3萬은 너와는 관계없이 그들 마음대로 하는 國人이다. 左翼 3萬 國人도 모두 너에게 있는가? 3萬 國人도 없으면서 옛날 말로 40萬이라고 자랑하고, 나의 國人은 적어 겨우 3萬이라고 알보는 것을 天地가 모르겠는가?⁵⁴⁾

누르하치는 이어서 '나의 國人은 너의 國人처럼 40萬의 다수는 아니
고 나 자신도 너처럼 용감하지 않다. 나의 國人은 적고 나 자신은 겁

53) 『滿文老檔』, 太祖 14, 天命 5年 1月, 205쪽.

54) 『滿文老檔』, 太祖 14, 天命 5年 1月 17日, 208-209쪽.

쟁이이지만 天地는 나를 보살피 하다國, 호이파國, 올라國, 여허國, 무서, 니오왕기야하, 開原, 鐵嶺 등 7대 지방을 나에게 주었다'고 하여 그간의 성공을 과시하였다. 이어 립단이 누르하치에게 '내가 貢을 취할 廣寧 지방을 토벌하지 마라. 만약 네가 토벌한다면 나는 너를 방해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너와 나 두 사람이 不和하다면 네가 한 말 옳다. 우리 두 사람이 전혀 不和하지 않았는데 異姓인 明國의 廣寧城 때문에 天地가 보살핀 한(Han)인 사람을 모멸하고 그렇게 이치에 안 맞는 惡言을 내가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天意를 거스르고 이치에 안 맞게 지내는가? 내가 진실로 바른 마음을 갖고 지내는 것을 天地가 가상히 여겨 幸福 勇力を 나에게 주었던 것을 너희는 듣지 못했는가? 너는 왜 나를 방해하려 하는가? 너 스스로 廣寧에 가서 조금 얻은 재화는 내가 성곽을 크게 부수고 정벌할 것을 明이 두려워해서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너를 친척으로서 보살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너를 보살피 준 것이라면 너는 왜 그 적은 재화를 받았는가? 전에 빼앗겼던 大都城과 30萬 몽골인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네가 한 그 말 옳다. 내가 明國을 토벌하기 전에 너 바투루 칭기스 한은 한번 공격하여 甲冑를 실었던 낙타 등을 모두 버리고 빈 몸으로 탈출하였다. 그 후 한번 출병했지만 거건 다이칭 버일러의 히야를 물에서 죽게 하고 10여人を 붙잡히고 헛되이 돌아왔다. 너는 스스로 두 번 明을 공격해서 얼마나 많은 을지(俘擄)를 얻었는가? 어떤 大城郭을 부숴는가? 어떤 곳의 大兵을 격파했는가? 明國은 언제 너에게 이렇게 많은 賞을 주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가 明을 정벌했을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남겨 두었기 때문에 明은 우리 힘을 두려워하여 너를 피기 위해 주었던 재화가 아니던가?⁵⁵⁾

누르하치는 립단 한이 明으로부터 얻게 된 廣寧의 撫賞銀도 실은 後金이 遼東을 공격하자 明이 립단 한을 이용하여 後金을 저지하려고 준 것이고 립단 한이 직접 對明 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립단 한이 後金の 廣寧 진출을 저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55) 『滿文老檔』太祖 14, 天命 5年 1月 17日, 209-211쪽.

리고 누르하치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女眞과 몽골의 文化 同質性을 내세워 棘丹 한의 反後金 行동을 비난했다.

明과 朝鮮 두 나라는 언어가 다르지만 의복도 두발도 같은 모양이어서 두 나라는 마치 한 나라인 것처럼 지낸다. 우리 두 나라는 언어가 다르지만 의복과 두발은 같다. 네가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오랜 원수인 明을 형님 한(han)이 토벌할 때 天地가 도와서 城郭을 많이 부수고 大君을 격파하고 왔다고 한다. 天地가 도와주는 형님 한과 뜻을 같이 하여 우리의 원수인 明國을 토벌하자’고 말해 왔으면 좋았을 것이다. 너는 天地에 행복을 구하는 大義名分을 생각지 않고 다만 얻을 것만을 탐하여 사람에게 헛된 재화 때문에 전혀 불화 없이 지내고 언어가 다른 나라의 한(han)인 사람을 모멸하고 원한을 일으켜 지내는 것을 天地가 모를까?⁵⁶⁾

누르하치는 棘丹 한이 이미 明朝의 재화 획득에 뜻이 있기 때문에 後金과는 타협의 가능성이 없고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이 편지를 통해 棘丹의 기세를 꺾어 놓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누르하치의 편지에 대해 棘丹 한은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고 이전에 누르하치가 棘丹 한의 사자에게 했던 대로 後金の 사자를 억류했다. 결국 後金の 한 누르하치와 몽골의 한 棘丹은 對明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대립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後金과 棘丹 한의 충돌에 이어 얼마 전에 체결했던 後金과 칼카의 연맹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1620년 4월 17일 누르하치는 칼카 오부의 버일러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누르하치는 칼카 버일러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다. 하나는 누르하치의 對明 공격이 어떤 명분을 갖고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누르하치는 그간 明으로부터 받았던 간섭의 사례들을 열거하고 明은 누르하치가 어떻게 하여도 간섭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쟁

56) 『滿文老檔』, 太祖 14, 天命 5年 1月 17日, 211쪽.

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對明 전쟁이 결코 '먹고 입는 것 얻겠다'고, '타인의 땅에서 살겠다'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올바로 살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하늘에 서약하고 시작한 전쟁이다'고 주장하여 對明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는 明과의 전쟁을 중지하고 講和하는 것에 대해 누르하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말하였다. 누르하치는 明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첫째로 제기한 조건은 '明이 칼카의 버일러들에게 賞을 주겠다, 황제의 칙서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거짓말하여 변경에 築城할 시간을 벌고, 전에 賞을 추가해 주겠다고 한 말을 어기고 加賞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칼카의 버일러들은 노하여 後金과 함께 明을 토벌하기로 서약하였는데, 강화하려면 明이 잘못을 인정하고 칼카의 버일러들에게 舊賞에 추가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女眞 아구다와 몽골 태무진의 예를 들어 天運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七大恨의 대가로 遼河 以東의 지방을 後金에게 달라는 것이었다.⁵⁷⁾

이미 칼카와 맹약을 맺은 이후인데 이러한 장문의 편지를 썼던 이유는 누르하치가 칼카의 중소 버일러들의 태도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칼카의 중소 버일러들은 누르하치가 결국에는 明과 화해할 것이므로 자신들에게는 명분도 없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 反明 전쟁에 後金과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보다 明朝의 招撫에 응하여 실리를 얻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때문에 後金과의 맹약을 주도했던 두렁 흥 바투루와 어부거더이 후왕 타이지는 중소 버일러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누르하치는 明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 칼카 버일러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反明 연맹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칼카

57) 『滿文老檔』太祖 15, 天命 5年 4月 17日, 225-236쪽.

중소 버일러들의 의문을 해소시키지 못하였다. 누르하치가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이미 明의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고, 영토를 획득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遼河 以東을 요구하고 있는 등 모순이 있는 누르하치의 주장을 칼카의 중소 버일러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누르하치는 다시 5월 중에도 역성거와 히피를 칼카에 사자로 보내 편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누르하치는 이 편지에서 몽골 버일러들과 함께 明을 정벌하고, 講和하게 되면 함께 강화하기로 하늘에 맹세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가다르한 버일러는 이 맹세를 깨고 明의 말을 받아들이고, 잡혀있는 자이사이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 칼카 버일러들의 동향을 파악하려 하였다. 그런데 6월 8일 칼카에 갔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칼카의 버일러들은 모두 말을 바꾸었다'고 보고하였다. 사자들이 오바 다이칭에게 두 번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으며, 여러 버일러들은 사자들조차도 보내 오지 않았고 두 버일러의 사자만을 만나고 돌아 왔다고 하였다. 두령 홍 바투루 버일러도 '나의 아들과 손자들은 변심했다. 나는 어찌해도 한과 등돌리지 않겠다'고 말하여 칼카 버일러들이 모두 맹약을 파기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⁵⁸⁾

칼카의 背盟을 확인한 누르하치는 19일 다시 두령 홍 바투루, 어부 거더이 후왕 타이지, 다른 바투루에게 편지를 보냈다. 누르하치는 편지에서 오부의 버일러들은 잘못된 바가가다르한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천지에 서약한 말을 생각하지 않고, 명국이 꺾는 말에 빠져 사자의 왕래를 중단하였는데, 後金이 칼카와 왕래가 끊어진다고 살아갈

58) 바가다르한은 자이사이의 백부로 明朝측의 기록에서는 暖氈라 불린다. 오부 칼카가 後金과 맹약할 때 참가하지 않았다. 오바 다이칭은 두령 홍 바투루의 장자. 두령 홍 바투루 버일러는 明朝 측의 기록에서는 炒花.

수 없겠는가라고 말하고, 廣寧을 획득하면 자이사이를 석방하기로 약속했는데 칼카의 버일러들이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자이사이를 석방하겠느냐고 하여 포로로 잡힌 자이사이를 칼카 버일러들의 행동을 제약하는데 이용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맹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된 칼카의 後金 침탈 행위를 열거하고 이러한 침탈 행위가 계속되는데다가 칼카가 사자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後金の 사자가 믿고 갈수 있겠는가고 말하여 누르하치도 칼카와의 맹약을 파기할 수도 있음을 선언하였다.⁵⁹⁾ 누르하치는 칼카와의 맹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알고 後金과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두렁홍 바투루 등 지도자격인 버일러들에게 소버일러들을 통제하게 하여 적어도 反後金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칼카 버일러들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누르하치는 립단 한에게도 최후의 통첩을 보내 後金の 사자를 립단 한이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아직 살아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정해진 날까지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인 것으로 알겠다고 통고하였다.⁶⁰⁾ 그러나 립단 한에게서는 아무런 회답이 없었고 결국 립단 한의 사자는 처형되었다. 이로써 누르하치가 몽골 칼카오부, 차하르 립단 한과 反明 연맹을 맺으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후 後金과 몽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각기 明朝와의 관계를 전개해 나갔다.

3. 만주와 몽골의 對外經濟 변화

1) 만주의 遼東 漢人 지배

後金은 여러 병합 이후 明과 遼東 변경 상에서 대치하면서 遼陽으

59) 『滿文老檔』太祖 15, 天命 5年 6月 8日, 237-240쪽.

60) 『滿文老檔』太祖 15, 天命 5年 6月 8日, 240-241쪽.

로 공격해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後金이 明朝와 대치하며 전쟁 상태의 군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소모적인 것이었고 또 1620년 4월 이후 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後金の 식량 사정은 매우 곤란하여졌다. 누르하치는 당장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遼東 지역으로의 진입이 시급하였다. 우선 遼東 지역의 약탈을 통해 식량을 획득하고 식량 창고를 설치하여 官員을 선발해 관리하게 하였으며, 여러 곳에서 屯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식량 공급을 위해 朝鮮과 교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누르하치는 明朝에게 遼河를 양국 간의 경계로 삼자고 주장하여 영토 할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瀋陽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변 城堡를 공격했다. 그러나 明軍의 방어선에 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성과에 그쳤다.

1620년 10월 방어정책을 펴던 熊廷弼을 대신하여 袁應泰가 遼東經略이 되어 잃었던 撫順·清河를 회복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後金과 明의 대치 국면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누르하치는 1620년 10월 자이피안(界藩)城에서 사르후城으로 옮겨 서쪽으로 진공하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다이산·아민·망골타이·홍타이지 등 子姪들과 맹세를 하여 내부 통합을 강화했다.⁶¹⁾ 1621년(天啓元年, 天命 6년) 1월 누르하치는 遼·瀋으로 진군하기로 결정하고, 2월 奉集堡 등지를 공격하여 瀋陽을 고립시키고 3월에는 瀋陽城을 함락시킨 다음 遼陽으로 향했다. 遼陽은 遼東의 重鎮으로 經略 袁應泰가 鎮守하고 있었으나 後金の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함락되었다. 後金은 遼陽 함락 이후 주위의 70여 개의 대소 城堡를 점령했다. 4월 누르하치는 버일러 암반들과 의논하여 遼陽으로 遷都하였다. 누르하치는 천도한 이유를 遼陽이 遼東을 통제하는 중추이고, 몽골과 朝鮮이 明과 연결되는 교통로를 통제하고 明朝에 대항하는데 유리하고, 나아가 全

61) 『滿洲實錄』 卷 6, 天命 6년 正月, 248-250쪽.

遼東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천도한 이후 熊廷弼 등이 신축했던 遼陽城에는 撫順에서 투항한 李永芳이 주둔하게 하고, 누탈취할 르하치는 太子河 동쪽에 새로 건설한 東京城에 주둔하였다. 瀋陽과 遼陽에 이어 河東의 14衛가 모두 後金에게 들어오게 되자 遼河 以西 지역에도 혼란이 일어나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入關하거나 주변의 섬으로 도망하여 텅 비게 되었다.

遼東으로 진입한 이후 後金은 안과 밖으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遼陽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明朝는 熊廷弼을 다시 遼東經略에 등용하고 王化貞을 廣寧巡撫에 임명했다. 熊廷弼과 王化貞 사이에는 이른바 ‘經撫不和’의 문제가 있었다. 王化貞은 ‘一舉蕩平’의 책략을 써서 後金을 소멸하려고 하였던 것에 비해, 熊廷弼은 ‘三方布置’의 책략을 써 河西에서 시간을 벌고, 廣寧을 고수하여, 山海關을 안전하게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王化貞은 援兵을 포함하여 新舊 官兵 13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몽골 차하르 립단 한이 협조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40만 대병을 이용하면 後金을 일거에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王化貞은 廣寧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三岔河에 연하여 大營을 설치해서 後金과 대치하면서, 毛文龍이 後金の 배후를 교란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後金은 西南과 東南 지역의 錦州·復州·海州·蓋州와 鎮江 일대에서 明軍과 쟁탈전을 벌였고, 遼東 漢人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군사적인 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明朝의 교란 작전으로 後金の 사회 내부도 불안한 상태였다.

遼東으로 이주한 이후 後金 내부의 위기도 심각하였다. 만주인은 遼東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漢人과 합주하였다. 매 漢人 村에서는 漢人家戶가 女眞 家戶를 받아들여, 大家 漢戶는 大家 女眞戶와 합하고 小家는 小家끼리 합하도록 하였다. 이주해 온 가호의 식량은 漢人戶가 공급하여 女眞 각 가호의 인구수에 따라 人마다 월 4승씩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9월까지만 시행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것이었

다. 누르하치는 漢人들이 감추어 둔 양식을 보고하도록 하고 漢人의 양식 창고를 女眞과 漢人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했으며, 사료와 柴草도 공동으로 사용하게 했다. 양식이 부족한 舍住 戶에게는 국가의 公庫에서 공급했다. 대부분의 女眞戶는 漢人戶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같은 방에서 살기도 했는데 그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고 생활방식도 달라 서로 불편하였다. 다수의 女眞戶는 漢戶에 붙어 살면서 정복자로서 자처하여 漢人을 업신여기고, 漢人의 가축을 마음대로 잡아먹고, 漢人을 농사짓는데 부리고, 잡역에 종사시키는 등 漢人을 핍박하였다.⁶²⁾

遼東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누르하치는 漢人 중에서 대규모로 병력을 징집했다. 약간 뒤의 일이지는 하지만 1623년 11월 漢人은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男丁을 통계내어, 20인 중에 1인씩을 징발하여 군에 편입시키고, 긴급할 때에는 10인에 1인을 징발하고 긴급하지 않을 때에는 100인에 1인씩 징발하게 했다. 軍에 편입되는 자는 10량 정도 하는 戰馬를 준비하고, 그밖에 필요한 軍裝備는 20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급하게 하고, 軍戶는 전 가족이 遼陽으로 이주하게 했다.

女眞과 漢人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女眞 관원이 漢人을 관리하는 것이 곤란했다. 때문에 누르하치는 漢官에게 漢人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漢官의 누폐를 염려하여 漢人 관원과 女眞 관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女眞 都堂, 總兵官은 3천 丁, 副將은 1700 丁, 參將과 遊擊은 1000 丁, 備禦는 500 丁을 관할하게 하고, 漢人 總兵官은 4000, 副將은 3000, 參將은 2000 丁을 관할하게 했다. 이는 버일러의 아래에서 兩民族의 관원이 같이 또는 따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팔기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사 버일러와 女眞 관원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漢官이 그 아래에서 핍박을 당하지

62) 滕紹箴, 『努爾哈赤評傳』, 遼寧人民出版社, 1985, 279-280쪽. 이하 遼東 진출 후 廣寧 공격에 이르는 동안의 後金 사정에 대한 설명은 같은 책.

않을 수 없었다.

누르하치는 이 밖에도 漢人 20인 중 1인을 징발해서 徭役에 복무하도록 하였다. 1621년 6월에는 鞍山城을 수축하였고, 9월에는 東京城을 수축하였는데⁶³⁾ 이는 모두 漢人과 女真人 모두의 요역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민족간의 생활방식 차이, 무거운 兵役과 徭役 등으로 인한 漢人의 불만과 저항은 後金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遼陽을 함락하고 明과 遼河를 경계로 하여 遼東을 지배하려는 누르하치의 목적은 일단 달성되었다. 그러나 遼東을 안정시키고 통치를 강화하려면 반드시 全遼를 점령해야 하고 몽골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전환시켜야 했다. 遼陽의 동남과 서북, 廣寧의 삼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 통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後金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廣寧으로의 진공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廣寧은 遼陽을 지키고, 全遼를 점령할 수 있는 關鍵 지역이었다. 後金이 廣寧을 점령하게 되면 또한 몽골의 중요한 경제적 통로인 互市를 단절시켜, 몽골과 明朝의 관계를 차단하고 몽골 각부를 後金の 통제하에 들어오게 할 수 있었다.

누르하치는 遼·瀋을 점령한 이후 10개월간 明朝의 동정을 살피다가 明軍의 經略 熊廷弼과 巡撫 王化貞 간에 불화가 있어 전략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고, 廣寧 방비가 허술한 것을 알고 遼河를 건너 廣寧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後金軍은 1622년 1월 廣寧城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이어 주변 40여 城堡를 함락시켰다. 後金軍은 廣寧 등지에서 많은 인구와 양식을 획득하였고⁶⁴⁾ 여기에서 획득한 식량으로 일시적으로 식

63) 『滿文老檔』, 太祖 23, 天命 6年 9月 14日, 383쪽.

6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 後金이 광녕 함락 이후 획득한 식량과 인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창고에 있던 땅단과 유자 4천 필, 右屯衛에 있던 古米 421,130곡 5두 2승, 粟 15,020곡 7두 1승, 黑斗 54,320곡 1두 1승, 高粱 13,210곡 5두 3승, 합계 503,681곡 7두 7승.

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었다. 後金이 遼陽으로 천도하고 廣寧을 점령하게 됨으로써 後金의 대외경제 형태는 明과의 무역이나 약탈에 의존하던 것에서 漢人을 복속시켜 농경에 종사하게 하는 征服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後金이 瀋陽을 공격해 들어갈 때 몽골의 反後金 활동은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규모의 침탈은 계속 이어졌다. 칼카의 버일러들은 後金의 瀋陽 공격 계획을 미리 알고 자이사이를 구출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⁶⁵⁾ 또 칼카 조릭투 버일러, 바가다르한, 바린의 시르 후낙의 國人이 後金이 瀋陽城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물을 약탈하려고 이삼천 명이 馬·낙타·牛車를 가지고 온 것을 瀋陽城의 곡물을 모아둔 곳을 지키던 팔기병이 격퇴하고, 牛 300, 馬 20, 낙타 4두를 빼앗고 30인을 붙잡기도 하였다. 그중 6인에게 몽골 버일러들에게 보내는 글을 갖고 돌아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왜 우리가 얻은 곳을 침입했느냐고 죽였다.⁶⁶⁾

몽골의 遼東 지역에 대한 침탈이 이어지자 누르하치는 1621년 3월 23일 영거더르 어푸를 통해 칼카 오부 버일러들에게 침탈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河東의 明의 國人을 모두 항복시켜 머리 잘랐다. 오부 버일러들은 각기 國人을 잘 간수하라고 말하라. 잘 간수하라고 말하지 않아서 우리 境內를 어지럽혀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우리를 침해할

(『滿文老檔』太祖 34, 天命 7年 1月, 498쪽.) 錦州城에서 데려온 女와 아이 7,634명, 男 6,150명, 합계 13,781명.(『滿文老檔』太祖 35, 天命 7年 2月, 514쪽.)

65) 1월에 몽골인 4명이 布疋을 가지고 누르하치 家에 무역하러 갔다가 누르하치가 윤2월에 심양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돌아와서 난토에게 알렸다. 난토는 각영에 사람을 보내 요하 일대에 注目하고 있다가 누르하치가 심양을 공격하는 것을 기다려 누르하치의 寨를 공격하여 자이사이를 구해오자고 하였다. 『熹宗實錄』天啓元年 2月 乙丑.

66) 『滿文老檔』太祖 19, 天命 6年 3月 19日, 292-293쪽.

때에는 큰 일로 번진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경내에 들어와 어지럽혀 우리 兩國이 전쟁하게 되어 친선했던 大道가 깨지면 뭐가 좋겠느냐?⁶⁷⁾

또한 칼카 오부의 버일러들이 이전에 明을 같이 정벌하기로 맹약을 체결했다가 배반하였으므로 이제 칼카오부는 따로 明을 토벌하고 後金이 복속시킨 지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만일 침범할 때에는 칼카를 토벌하러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다음과 같은 편지도 보냈다.

오부 칼카의 버일러들아! 우리 兩國이 天地에 맹세했던 것은 진실한 것이다. 너희 오부 버일러들은 천지에 서약했던 말을 깨고 明에게 賞을 받아 장사하고 民도 자신도 明과 하나가 되어 행동했다. 너희 오부 버일러들은 明을 토벌하겠다고 하면 나와는 따로 토벌하는게 좋겠다. 한 자신은 遼東城에 거주하고 있다. 河東의 國人은 모두 머리를 깎았으니 나의 행복한 국인을 너희는 왜 빼앗는가? 너희가 이와 같이 토벌해 온다면 나도 또한 너희를 토벌하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내가 멸망시킨 국인을 탈취하여 우리 양국이 불화하게 되면 뭐 좋은 것이 있겠느냐? 河東의 국인이 아직 머리를 깎지 않고 遼河를 건너 다리를 부었다고 한다. 겨울 얼음 언 후 遼河의 저쪽 국인을 토벌한다. 오부 버일러들은 明을 토벌하겠다면 얼음 얼기 전에 하동의 국인을 토벌하는 것이 좋겠다.⁶⁸⁾

여기에서 누르하치는 遼東 河東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몽골의 침탈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실은 겨울에 廣寧을 공격할 것임을 말하고 이때 칼카가 廣寧城을 공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後金이 공격하기 이전에 몽골이 먼저 공격하여 廣寧이 몽골 방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後金の 廣寧 공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遼陽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後金은 몽골과 직접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몽골의 침탈에 대비한 방어 설비도 갖추기 시작했다. 이때 누르하치는 몽골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여 몽골과의 직접

67) 『滿文老檔』太祖 20, 天命 6年 3月 23日, 295쪽.

68) 『滿文老檔』太祖 20, 天命 6年 3月. 295-296쪽.

적인 충들을 피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⁶⁹⁾ 누르하치가 몽골 쪽에 있는 초소에게 접경 지역에서 몽골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함부로 이들을 침범하지 말고, 경내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추격하지 말라고 명하고, 이들은 한을 품고 後金의 병사를 유인하여 속이려는 것이니 그 간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의시켰던 것도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⁷⁰⁾

누르하치는 칼카 버일러들과 맹약할 때 廣寧을 함락한 이후에나 자이사이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지만 廣寧을 탈취하기 전인 1621년 8월 자이사이를 석방했다. 자이사이의 아들과 두 딸이 몸값으로 가축 1만을 가져오자 누르하치는 자이사이에게 서약하도록 한 후, 좋은 재물을 賜與하고 여러 버일러들에게 10리 밖까지 전송하게 하여 放免해 보냈다.⁷¹⁾ 또한 자이사이 대신의 인질로 보내온 딸을 암바 버일러와 혼인시켰다. 누르하치가 약속보다 일찍 자이사이를 돌려보낸 것은 처음과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칼카 오부의 버일러들은 이미 朋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더 이상 자이사이를 인질로 하여 칼카오부를 後金과의 연맹 상대로 묶어 둘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자이사이를 석방하여 그가 칼카로 돌아가 칼카의 反後金 행동을 통제해주시기를 바랐다. 또한 자이사이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돌려보내되 대신 그의 아들과 딸을 인질로 요구하고 가축 1만 마리를 몸값으로 요구했다.⁷²⁾ 1622년 1월에는 칼카 자루트부의 박 버일러를 석방하고 아들 오치르상을 인질로 잡아두었는데⁷³⁾ 이것도 같은 방식을 시도했던 것이었다.

69) 야히찬 등이 병 1천을 이끌고 몽골의 경계에 戍守하러 갔다. (『滿文老檔』太祖 23, 天命 6年 6月 6日, 339쪽.) 압부타이 낙추가 병 1천을 이끌고 몽골 쪽의 경계에 술수하러 갔다. (『滿文老檔』太祖 29, 天命 6年 11月, 339쪽.)

70) 『滿文老檔』太祖 21; 天命 6年 5月 3日, 318쪽.

71) 『滿洲實錄』卷 7, 天命 7年 8月 9日, 282쪽.

72) 董玉瑛, 「宰養援鐵嶺和後金與內喀爾喀部關係」, 『史學集刊』, 1988年 第4期, 20-21쪽.

누르하치는 또한 칼카오부 버일러들과 이전에 체결했던 연맹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시도하였다. 먼저 1622년 1월 몽골 빙투 마파에게 편지를 보내 이전에 논의하던 혼인 문제를 다시 추진하는⁷⁴⁾ 한편 칼카 오부의 버일러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연맹관계의 회복을 시도했다.

우리 兩國이 天地에 서약한 말을 너희가 깬다. 지금도 잘못된 자가 잘못된 것이다. 옳은 자를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말에 넘어갈 어린아이인가? 사람이 서로 공경하면 싸움은 중지된다고 한다. 친선의 道를 지키려면 서로 존경하면 될 것이다. 나쁜 짓을 시작하면 道가 이루어지겠는가? 너희의 惡言에 대해 악언으로 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넓은 마음의 한이 악을 따라 악을 시작하는가 하고 생각하여 이 편지를 보낸다. 오부의 버일러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道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우이 자이상, 바양가 두 사람을 파견하라. 山海關에서 이쪽은 모두 머리 깎고 나의 國人이 되었다. 그것을 알고 來侵한다면 너희 뜻일 뿐이다. 不和의 道에 善 없고 親善의 道에는 惡 없다.⁷⁵⁾

칼카와 연맹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누르하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칼카의 버일러들에게서는 응답이 없었고 다만 몇몇 버일러와 왕래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누르하치의 對몽골 외교는 몽골 각부가 적극적으로 反後金 활동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었고 이를 통해 後金은 몽골의 방해 없이 遼東 漢人 지배로 전환할 수 있었다.

2) 몽골의 對外經濟 변화

後金이 遼東으로 진출한 이후 明朝에서는 廣寧 방어 대책으로 다시 몽골의 이용이 논의되었다. 특히 遼東 巡撫 王化貞은 몽골 炒花 諸部

73) 『滿洲實錄』 卷 7, 天命 7年 1月, 284쪽.

74) 『滿文老檔』 太祖 33, 天命 7年 1月 13日, 482-483쪽.

75) 『滿文老檔』 太祖 34, 天命 7年 正月, 499쪽.

에게 厚賞을 주고 이들의 병력을 이용하여 失地를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몽골에게 賞으로 주기 위한 자금을 朝廷에 신청하였다.⁷⁶⁾ 또 립단 한의 군대 40만을 동원하여 누르하치를 공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도 상금을 신청하였다.⁷⁷⁾ 王化貞은 炒花와 립단 한의 助兵에 기대를 걸었으나 몽골은 계속 挾賞을 할 뿐 明을 위해 출병하지는 않았다. 결국 後金이 廣寧을 공격했을 때 王化貞은 몽골 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廣寧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는 後金이 몽골과 결탁하게 되면 더 이상 遼東 지역을 회복할 길이 없게 될 것이라는 절박감에서 明朝의 몽골 이용 논의는 신속하게 진전되었다. 특히 廣寧은 몽골이 交易하고 撫賞銀을 수령하는 곳이므로 몽골이 원하는 이익을 주겠다고 유인하면 몽골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廣寧이 함락되고 明軍이 山海關으로 후퇴한 틈을 타서 영전 이서 지역 5城 12堡에는 守邊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라친이 점거하였는데 王在晉은 1622년 3월 경의 카라친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카라친 大酋, 罕孛羅勢, 伯彥, 黃台吉 등이 中軍 打打戶歹彥恰 등을 보내고, 또 朵顏衛 屬夷 36家 酋首 速不的, 暖太 등이 先後 각기 兵馬를 보내, 寧前 中前 등에서 줄지어 주둔하면서 우리를 위해 멀리 가서 哨探하고, 우리를 위해 東來 回鄉 인구를 송환하고, 우리를 위해 紫木 米豆와 같은 기물을 실어 운송했다. 비록 저들이 자신의 興販을 위한 것이지만 山海關에는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장작과 쌀이 귀한데, 諸夷人이 장작과 쌀을 가지고 와서 軍民의 일시 急用에 썼다. 山海로부터 산으로 이어진 수백 리 사이에는 西夷(몽골)가 길에 즐비하게 많다.⁷⁸⁾

카라친은 寧前 일대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新舊의 賞을 요구

76) 『明實錄』, 天啓 元年 6月 壬子.

77) 『明實錄』, 天啓 元年 9月 癸丑.

78) 『三朝遼史實錄』, 219쪽.

하였다. 王在晋과 王象乾은 카라친 주장들을 慰撫하고 4월 30일 漢字와 몽골字로 罰約 合同을 만들어 서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방의 주무 관원들과는 달리 조정에서는 몽골의 이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카라친에 대한 무상 비용이 즉시 지급되지 않았다.

릭단 한을 비롯한 차하르 8大營도 賞을 요구하였다. 립단 한의 사신 貴英恰이 와서 王在晋과 논의하여 賞의 내용을 결정하고, 8월 23일 山海道官 閻鳴泰, 關外道 袁崇煥, 撫夷官 李增 등이 出關하여 맹약을 맺고, ‘助兵하여 누르하치를 멸하고, 힘을 다하여 天朝의 疆土를 회복하겠다. 만일 누르하치의 兵이 왔는데 립단 한의 兵이 오지 않으면 舊賞을 단절 혁파한다. 만일 누르하치의 뇌물을 받고 背盟하여 몰래 누르하치와 합하면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도록 하였다.⁷⁹⁾ 이로써 차하르와 朵顏 36家, 薊鎮 주변의 몽골 각부가 明朝에게서 撫賞銀을 받기로 하고 변경에서 주둔하였고 明軍은 寧遠城을 중심으로 한 방어 기지를 구축하고 後金과 대치하게 되었다.

後金과 明朝가 대치의 지속되면서 몽골 군대의 유용성이 점차 줄어들었다. 몽골은 後金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고 明朝도 방어적인 전략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몽골을 이용하여 後金을 공격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몽골의 撫賞銀 획득은 그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몽골이 對明 撫賞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後金을 공격하여 공을 세우고 이를 명목으로 明朝에 撫賞銀 확대 지급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는 모험이 따랐다. 또한 後金の 遼東 진출로 몽골군의 효용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몽골이 明朝를 위협해서 撫賞銀의 증액을 요구하여도 明朝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새로운 撫賞銀을 획득하기는 어려웠다. 後金과 연합하여 활동한다 해도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遼東 漢人 지배

79) 『三朝遼史實錄』, 285-286쪽.

이익을 後金과 공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明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기존의 撫賞銀마저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때문에 몽골 버일러들은 反後金 태도를 유지하며 明朝에게 撫賞銀을 획득하는 방법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었다.

릭단 한을 비롯한 몽골의 추장들은 遼東 진출 이후 廣寧 以西 지역에서 明朝로부터 撫賞銀을 계속 수령할 수 있었지만 이전에 遼東 변경에 있었던 互市 무역은 모두 상실하였다. 몽골의 遼東 馬市는 永樂 초부터 개설되었다. 永樂 3년 開原과 廣寧에 馬市가 개설되어 兀良哈 三衛가 교역하였다.⁸⁰⁾ 遼東 馬市는 설립 후 明과 몽골의 관계 변화에 따라 개폐를 반복하다가 萬曆 년간에 증설 확대되었다. 廣寧에 1關1市가 개설되어 朵顏 泰寧衛가 교역했고, 開原에 新安關, 廣順關, 鎮北關의 3關3市가 개설되어 福餘衛와 西北 諸夷가 교역하였다. 이밖에 萬曆 중후기에는 義州·廣寧·錦州·寧遠·遼陽 등에 木市가 개설되었다. 兀良哈 삼위는 이외에도 京師에 朝貢하여 會同館에서 무역하는 이외에 돌아올 때 薊州와 喜峰口 시장에서도 각종 화물을 구입하고 撫賞銀을 수령하였다. 또한 兀良哈 삼위는 변경에서 撫賞銀을 수령하였다.

明朝의 기록에는 遼東과 薊鎮에서 互市하고 撫賞銀을 수령하는 몽골을 모두 兀良哈 삼위로 보고 있지만 1547년 차하르의 東遷 이후 兀良哈 삼위는 재편되고 이들의 활동 영역을 차하르·칼카·카라친 등이 차지하고 兀良哈 三衛를 복속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몽골은 兀良哈 三衛 만은 아니었다.

遼東 주변에 있던 몽골 각부의 추장들은 또한 遼東 각지의 城堡에서 撫賞銀을 수령하였다. 『明實錄』 天啓 7年 3月 癸酉 조의 기사를 보면, 煖兔·宰賽 등은 開原·鐵嶺에서 상을 주고, 릿단 한은 廣寧에서 상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외에 義州·錦州 등지에서도 각각 상을 준

80) 『遼東志』 卷3.; 『明實錄』 卷34, 41.

다고 하여⁸¹⁾ 하여 몽골 추장들은 정해진 지역에서 자신들의 撫賞銀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後金の 遼東 진출로 몽골의 추장들은 안정적인 자신의 互市와 撫賞銀 수령지를 상실하고 廣寧에서 關內로 다시 寧遠으로 이동하며 撫賞銀을 수령해야 할 뿐 아니라, 교역하기 위해서는 宣府 張家口 등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撫賞銀 지급을 몽골의 後金 방어에 이용하려는 明朝의 정책으로 인해 撫賞銀 수령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明의 撫賞銀은 립단 한에게 집중되었다. 明朝는 립단 한을 몽골의 대표로 인정하여 그에게 특별히 많은 撫賞銀을 지급하였고 明과의 관계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제까지 변성 각지에서 각자 자신의 撫賞銀을 직접 수령하였던 중소 추장들은 더 이상 明朝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립단 한이나 몇몇의 강대 추장들이 明朝의 撫賞銀을 수령하고 중소 추장들은 강대 추장의 분배를 통해서만이 明朝의 撫賞銀을 전달받을 수 있는 對明 경제 관계가 형성되었다.

後金이 대외경제에서 遼東 貿易 체제에서 遼東 漢人 지배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後金の 遼東 진출로 인해 몽골의 대외경제도 큰 변화를 겪었다. 몽골은 後金の 遼東 진출을 기회로 撫賞銀 확대를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기존의 遼東 무역과 撫賞銀은 모두 상실하였다. 대외경제의 변화와 불안정은 몽골의 정치체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였다. 互市 貿易과 撫賞銀의 획득은 그간 몽골의 정치 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대외경제 체제가 붕괴하였을 때 정치체제도 유지될 수 없었다. 後金の 遼東 진출은 몽골의 대외경제 조건을 변화시켜 몽골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81) 『明實錄』, 天啓 7年 3月 癸酉.

後金の 撫順 공격은 만주와 몽골의 對明 경제 체제를 바꾸어 놓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後金은 여허를 병합함으로써 이제까지 女眞에게 주어진 對明 경제권을 놓고 벌이던 女眞 各部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정치조직의 통합을 완성하였다. 또한 이제까지의 對明 조공과 무역 관계를 포기하고 遼東으로 진출하여 漢人 지배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몽골은 後金과 함께 遼東 각지를 공격하여 明朝에게 挾賞하는가 하면 만주를 저지하기 위해 몽골의 병력을 이용하려는 明朝의 의도에 따라 反後金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撫賞銀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後金이 遼東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몽골 각부가 갖고 있던 遼東과의 경제 관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외경제의 변화는 몽골 분산체제의 유지를 어렵게 하였다. 만주는 대외경제의 통합과 확대가 이루어져 정치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지만 遼東 지배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遼東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漢人 지배체제의 구축 뿐 아니라 對明 전쟁, 몽골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결국 만주의 遼東 진출로 인해 이제까지 분리되어 있던 만주와 몽골의 遼東 지역과의 경제 관계를 만주가 통합하였고, 이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만주와 몽골의 정치적 관계도 새로운 모습을 하게 되었다.

맺음말

몽골과 만주의 대외경제 의존성은 이들 내부의 정치체제가 통합되거나 분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몽골과 女眞 각부의 지도자들은 모두 對明 경제권을 확대하고 이를 내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에 이용하려고 하였다. 또한 내부의 정치조직 통합을 對明 경제권 확대에 이용하였다. 몽골과 만주가 遼東 변방에서 분리 병존할 수 있었던 것도 몽골과 女眞이 각각 독자적인 對明 경제권을 분할 소유하

였기 때문이었다.

15-6세기 몽골의 對明 경제는 통합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치체제는 점차 분열되어 갔다. 반면에 女眞은 점차 對明 경제가 통합되면서 통일된 정치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몽골과 만주는 遼東 주변에서 대외경제 확대를 둘러싸고 전개된 對明 전쟁이나 女眞의 내부 분쟁에서 연합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누르하치가 女眞의 對明 경제 병합과 정치체제 통합을 방해하는 明朝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시도했을 때에도 만주와 몽골은 연합 작전을 전개했다.

後金은 明朝에 대한 군사 작전에 몽골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몽골은 後金の 明朝 공격을 자신의 對明 撫賞銀 확대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明朝가 몽골의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여 몽골을 만주로부터 분리시키고 後金에 대해서는 군사적 강경 대응책을 실시하여 만주와 몽골의 對明 관계 형태가 달라지면서 이들의 연합은 지속될 수 없었다. 몽골은 明朝의 撫賞銀 획득을 위하여 反後金 활동을 전개하였고, 朝貢貿易 관계를 상실한 後金은 漢人 지배를 위한 遼東 진출을 감행하였다.

遼東을 둘러싼 명과 몽골·만주의 세력관계는 後金の 遼東 진출로 인해 크게 변화하였다. 몽골은 遼東지역에서의 무역을 상실하고 廣寧 주변에서 反後金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撫賞銀만을 습득하게 되어 대외 경제에서 크게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撫賞銀 일부 강대 지도자의 수중에 장악되어 이전에 조공무역 이익을 경제적 기반으로 존립하였던 중소 지도자들은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遼東 주변에서의 對外經濟와 政治上의 변화는 이후 몽골의 내분을 유발하였고 결국 몽골 각부가 遼東 지역을 포기하고 後金에게 투항하거나 장성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몽골과 만주를 분리하는 썩기 역할을 하던 遼東을 상실함으로써 明朝는 山海關을 경계로 만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遼東 지

역을 포기한 몽골 세력이 그 동안 평화 상태를 유지하던 장성지역으로 이동하여 경제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위협을 가하게 됨에 따라 遼東과 長城의 양쪽 北邊에서 만주와 몽골의 협공을 당하는 형세가 되었다.

만주는 이제까지의 朝貢貿易에서 漢人 지배로 대외경제 형태를 전환하였다. 그러나 漢人 지배를 통한 농업경제로의 전환은 만주에게 대폭적인 대외경제 확대를 가져다 줄 가능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안정적이고 공고한 遼東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明朝와의 전쟁은 진전이 없어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遼東漢人의 거센 저항이 발생하면서 後金 經濟는 고립과 궁핍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對明 전쟁과 漢人 지배에 적절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외경제의 확대가 필요하였다.

後金이 우선 군사적·경제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은 朝鮮·몽고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뿐이었다. 누르하치를 朝鮮과의 경제 관계 수립을 시도하는 한편 遼東 주변 몽골의 정치적 동요를 이용하여 聯盟關係를 수립하였다.⁸²⁾ 그리고 누르하치를 계승한 홍타이지는 몽골과의 聯盟 관계를 이용하여 長城 지역 몽골의 對明 경제권을 병합하고 나아가 몽골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킴으로써 後金體制의 危機에서 벗어나 大清體制로 전환할 수 있었다.

82) 盧基植, 「後金時期 만주와 몽골의 聯盟 관계」, 『明清史研究』 第十一輯, 1999, 1-35쪽 참조.